에너지 절약! 쿨한 당신!

집에서

냉장고 온도를 1도만 높여주세요

냉장고 온도를 1도 올리면 5%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냉동실은 영하 15도~영하 18도, 냉장실은 3~4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실 문을 6초간 열어두면, 이때 올라간 냉장고 온도를 다시 내리는 데 30분이 소요됩니다.

진공청소기 먼지 필터부터 '싹싹'

진공청소기는 가전기기 중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큰 기기입니다.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경우엔, 먼저 필터와 먼지통을 청소해 주세요. 먼지 흡입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낮은 전력을 사용해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세탁은 찬물로 해주세요

세탁물의 온도를 높게 설정하면 에너지 낭비가 심해집니다. 찬물로 세탁을 해도 세탁기능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가급적 찬물로 세탁을 해주세요.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 낮은 온도의 물로 세탁을 하는 것이 에너지를 아끼는 노하우입니다.

다림질은 한꺼번에 모아서

다리미는 처음에 켜서 가열할 때 대부분의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분량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다림질하면, 연간 사용시간을 20% 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빨래도 한꺼번에 모아서

소비전력이 큰 세탁기를 자주 돌리면 전력 낭비가 심해집니다. 한번에 많은 세탁물을 모아서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낮시간을 피해 밤에 세탁기를 돌리면, 전력피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업장과 사무실에서

문열고 에어컨 틀면 과태료 물어요!

덥다고 에어컨을 틀고서, 문을 열어놓아서야···. 정부는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난방기를 가동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일정한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수급이 비상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시기는 이달 말 확정됩니다.

권장 냉방 온도를 지켜주세요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는 26~28도입니다. 적정온도를 준수하면 아토피나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냉방온도를 1도 조절할 경우 7%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무기기 충전이 끝나면 플러그를 빼세요

휴대폰, 태블릿PC, 카메라 등 휴대용 전자제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이 다 충전되면 반드시 플러그를 빼주세요. 전력사용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 흡혈귀, 대기전력을 잡아라

컴퓨터, TV 등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많은 전력을 잡아먹습니다. 이 같은 대기전력은 '전기 흡혈귀'라고 불릴 만큼 소모하는 전기량이 많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주세요.

재킷은 벗어던지고, 타이도 훌훌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여름철 노재킷 근무를 권하고 있습니다. 노타이 근무에 이어지는 파격적인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체감온도를 2도 이상 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Weekly 공감

2012.05.30 NO.161

gonggam.korea.kr

한국의 물관리 노하우 세계가 배우러 온다 P23~38

4대강, 세계가 지켜본다

브렛 샌더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캠퍼스
토목환경공학과 학과장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물관리 계획을 한국이 놀라운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제방 정비, 수량 확보를 위한 보 건설, 생활용수 공급시설 개선, 보호 동식물 증식을 위한 습지 복원, 여가생활 공간 확보 등 방대하다. 이런 한국적 접근방식이 다른 나라가 따를 만한 예가 될 것인지 세계가 지켜보게 될 것이다.

지난주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물 공급과 수질, 하천의 건전성, 홍수와 가뭄 같은 수리·수문학적 위험요인들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경북대 교수진·학생들과 교류가 목적이었으며, 많은 물 관련 논의가 이뤄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에도 참석했다. 이번 방한은 문화적·기술적 측면에서 아주 값진 경험이었으며, 무엇보다 강한 인상으로 다가온 부분이 4대강살리기 사업이다.

어쩌면 한국은 여태 세계가 보아 온 가장 야심찬 물관리 계획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서구적 기준에 놓고 볼 때 그 일정과 규모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에서는 작은 규모의 계획들조차도 건설 전 분석과 계획에만 10년은 족히 걸린다.

그런데 한국은 계획과 건설을 대략 5년 안에 완료한다는 구상으로 진행 중이며, 제방정비·수량확보를 위한 보 건설, 생활용수 공급시설 개선, 보호 동식물 증식을 위한 습지 복원, 여가생활 공간 확보 등을 포함하는 방대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사실 이 사업은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대한 근대적 사고의 집약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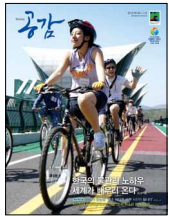
지금 전 세계의 주요 강 사업들, 특히 댐 건설을 포함한 강 사업을 보게 되면 엇갈리는 성공의 기록을 볼 수 있다. 댐 건설은 수자원 공급, 홍수통제, 수력발전이란 측면에서 많은 경우 성공적이었다. 반면 산란 및 서식지 감소에 따른 해양수산업의 쇠퇴, 해안침식을 막아 주고 해변 유지에 필요한 유사퇴적물 공급 난조, 홍수가 잦은 지역에서의 불안전한 개발, 하천 온도 같은 수문·생태적 요소의 변화에서 비롯된 하천 서식지 감소 등의 역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이 이번 사업의 결과로 미래에 이와 유사한 문제들에 당면하게 될까? 시간만이 이를 말해 줄 것이다. 어도, 습지, 침전물 관리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보여줄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한국적 접근방식이 다른 나라가 따를 만한 예가 될 것인지, 아니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될 것인지 세계가 주의 깊게 지켜보게 될 것이다.

나아가 4대강살리기 사업이 기후변화와 모든 환경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특히 서구에서 과거 대규모 물 사업과 관련해 저질러 온 실수로, 현 상태에 안주케해 피할 수 있는 문제들을 불러오게 만든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도시화가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를 막기 위한 개발정책, 환경보호 및 보전방안, 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 도시화는 그 영향력이 더 강력하다.

한국에 머문 일주일은 4대강살리기 사업뿐 아니라 한국의 오랜 역사를 배우고 한국인의 너그러운 성품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원래 목표했던 대로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설사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은 빛나는 미래를 위해 필요한 보완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자원들을 갖고 있음을 나는 인지하고 있다. G

Contents

161호
2012.05.30 통권 262호

표지 이야기 | 백제 문화가 흐르는 금강변에서의 자전거 타기는 즐거웠다. 지난 4월 28일부터 1박2일간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열린 주한 외국인 대상 수변관광레저 체험행사 참가자들이 금강 백제보 위를 자전거로 달리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박경아 기자

기획특집

‘생명의 강’이 된 4대강 해외서는 물관리 교과서

가뭄과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시작한 4대강살리기 사업이 착공 4년을 맞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대강살리기가 지난해 홍수를 성공적으로 막아 내며 한국의 물관리 기술에 대해 학계·언론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기술제휴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강변을 따라 이어진 자전거길과 아름다운 풍광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도 보여주고 있다. 출발 당시 기대와 우려를 함께 전하던 해외 반응은 이제 4대강살리기가 목표했던 모습과 기능을 갖춰가면서 감탄스럽다는 반응과 더불어 생명의 강으로 지속될 수 있는 유지 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모이고 있다.

23

18

54

40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2.05.30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6월 14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가정의 달 에세이 읽고 어머니 생각나

160호 가정의 달 에세이를 잘 읽었습니다. 작가의 시어머니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고 여섯 남매를 낳아 키우신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저희 어머니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자식들 뒷바라지에 온갖 고생을 하시고 자신의 이름이 아닌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오신 어머니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머니께 전화 드려서 그동안 전하지 못한 마음을 전해 볼까 합니다. **김여중 (51·회사원·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비비비코리아 덕분에 외국어 걱정 없어요

160호 '통역봉사 bbb 여수서 외국인 만나면 당황하지 마세요'를 잘 읽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해 내·외국인에게 통역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있다니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외국어에 자신이 없어서 길에서 외국인이 말을 걸 때 당황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bbb 통역' 앱도 있어 외국어 서비스를 24시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이번 휴가 때 여수세계박람회에 가려고 했는데 외국인을 만나도 비비비코리아의 도움을 받으면 되니 든든합니다. **박윤진 (23·회사원·충북 청주시 흥덕구)**

어려운 처지의 예술가에게도 관심 보여야

158호 세대공감 '취업? 미래? 우리 고민이 뭔지 알아요?'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네 자녀 중 둘이나 예술을 택했던지라 예술전공 학생들의 고민이 남 일 같지 않더라고요.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복지 측면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들의 삶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유명 예술가에게만 관심을 보였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예술가들의 아픔에 눈길을 돌려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인자 (79·주부·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유은숙 기획조정실장 본받고 싶어

160호 고졸 첫 여성 고위공무원 유은숙 실장의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고졸 출신 첫 여성 고위공무원이라는 점도 놀라운데 컴퓨터공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셨다니 존경스러웠습니다. 낮에는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공부만 하는 것도 힘들다고 투덜거리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도 유은숙 실장을 본받아 최선을 다해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현진 (23·학생·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독자 인터뷰

"여수엑스포 특집 유익… 주부 재취업 정보 다뤄줬으면"

이은주 (48·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이은주씨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을 홀로 키우는 주부이자 가장이다. 이씨는 대학 졸업 후 10년 가까이 대기업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화장품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가장으로서 생업 현장에서 뛰랴 사춘기 아이 돌보랴 정신이 없지만 매주 나오는 〈위클리 공감〉은 꼬박꼬박 본다"며 "새로운 정책이나 바뀐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다뤄 줘 유익하다"고 말했다.

지난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여수엑스포를 다룬 기획특집 기사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아이와 함께 '한번 다녀와야지' 하면서도 '거리가 멀어 교통이 불편하고, 성수기라 숙박료도 바가지를 쓰기 십상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미루고 미뤄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위클리 공감〉에 엑스포 기간의 여수 교통과 숙박 정보를 다룬 기사가 실려 이런 고민이 말끔히 해결됐습니다. 아들과 둘이 향일암 같은 사찰에 묵으면 숙박비도 아끼고 템플스테이도 경험할 수 있어서 1석2조일 것 같아요."

다음 호에서 꼭 다뤄 주었으면 하는 내용은?

"올해는 무더위가 예년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저처럼 일하는 엄마들은 아이의 먹거리에 더욱 신경이 쓰이지요. 무더운 여름철에는 식중독도 잦고 여러 가지 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높으니 여름철 건강 관리법에 대해 다뤄 주었으면 합니다.

또 형편이 어려운 주부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재취업 정보도 게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 림

국회 웹툰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대한민국 국회는 제19대 국회 개원 및 제64주년 제헌절을 기념하여 웹툰을 공모한다. 주제는 '제19대 국회의원에게 바란다'이다. 응모는 고등학생부터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출품규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를 참고하면 된다.

응모자격 | 고등학생부터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
응모부문 | 웹툰
응모주제 | 제19대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응모기간 | 6월 24일까지
시상내역 | 대상 1명 상금 3백만원 등 총 17명(팀)에게 상장 및 상금 수여
접수방법 | 국회 웹툰 공모전 전용 웹하드로만 접수 가능
※웹하드 업로드 – Webhard (ID NAWEBTOON / PW NA0717)
문의 | **공모전 담당자 ☎070-7607-1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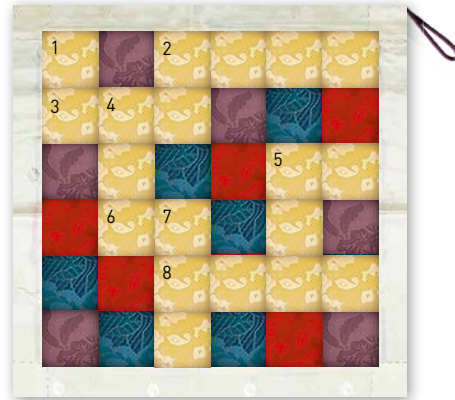
내가 만드는 교통안전 이야기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이 '2012 교통안전 UCC&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응모주제는 나만의 안전운전 노하우 등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안전 관련 이야기다. 심사는 '교통안전 관련 주제 이해도' '제작의도의 전달성 및 흥미와 관심 유발도'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모대상 |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 ※고등학생 이하 제외
공모부문 | UCC(동영상, 플래시), 사진
응모주제 | 운전 중 교통사고 유발 위험 행동 경고 이야기(DMB시청, 휴대폰 사용 등), 나만의 안전운전 노하우 등
접수기간 | 6월 15일 ~ 7월 31일
접수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http://award.ts2020.kr)에서 온라인 접수
문의 | **공모전 홈페이지 http://award.ts2020.kr**

158호 여수엑스포 퀴즈 정답 엑스포디지털갤러리
158호 여수엑스포 퀴즈 당첨자
최재순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 김승후 · 서울 양천구 신정3동 | 김두래 · 전남 광양시 금호동
김창길 · 충남 태안군 근흥면 | 강미영 ·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이명박정부 4년 성과 QR코드로 보세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무역 1조 달러 달성 등 이명박정부의 경제 4년 주요 성과를 인포그래픽으로 볼 수 있는 '위기를 넘어 더 큰 대한민국' 모바일 웹 QR 코드입니다.
URL : 4years.widget.go.kr

공감퍼즐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6월 13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2. 여수엑스포의 마스코트 이름은?
3. "국토해양부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여주 ○○○에 '하트트리' 포토존을 설치, ○○○가 가족과 연인들의 사랑 고백 명소로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5. 자전거와 트레킹, 그리고 이것을 '수변 3종 경기'라고 하죠.
6. 마사지.
8. 현재 알려져 있지 않아 경쟁자가 없는 유망한 시장을 가리키는 용어. "4대강살리기는 녹색성장의 핵심이자 ○○○○ 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다."

세 로

1.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가 있는 강은?
2. 부부가 서로 부르는 말. 자기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을 부르는 말.
4. 천 리 밖의 것을 볼 수 있는 안력(眼力)이라는 뜻으로,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뛰어난 관찰력.
5.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나무의 열매. 오이 모양이고 두꺼운 껍질 속에 많은 씨가 들어 있죠.
7. 종이에 대리암 무늬를 만드는 미술 기법. 소고기 등의 지방 층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이것이 고기의 맛이나 부드러움, 육즙 등을 더욱 풍부하게 한답니다.

〈Weekly 공감〉 159호(5월 16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2 자신감 3 르네상스 6 승진 7 가리 8 다정
세로 1 팡파르 2 자화상 4 네거리 5 스승 7 가정

〈Weekly 공감〉 159호 '공감 퍼즐' 당첨자
노현정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남궁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김형표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이예담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오무영 · 경북 성주군 용암면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상담원들이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4월 18일~5월 18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가 2만4천여 건에 달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한 달 새 2만여 건

대출사기 4천3백여 건 가장 많아… 5천여 건 수사기관에 넘겨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경찰청은 악덕 사채업자 1천여 명을 검거했고, 국세청은 탈세 사채업자 수백 명으로부터 1천억원대 세금을 추징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태스크포스(TF)는 대출금리 계산서를 발급하고, 법률 소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들이 악덕 사채업자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았다.

□ 대부업자 최필용(가명·59)씨는 급전이 필요한 영세서민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악덕 사채업자다. 최씨는 A씨에게 자금 2천만원을 법정이자율(등록업체 39퍼센트, 미등록업체 30퍼센트)보다 3배 이상 높은 연 1백20퍼센트의 고리로 빌려주고 A씨가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자 담보로 잡은 전세보증금을 강탈했다. 이 때문에 A씨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이를 비관한 A씨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최씨는 의류가게를 운영하는 B씨에게도 마수를 뻗쳤다. B씨에게 1천만원의 사업자금을 빌려준 후 상환이 연체되자 폭력·협박 등을 통해 담보로 잡은 상가보증금을 강제로 빼앗았다. 이로 인해 B씨는 떠돌이 막노동 생활자로 전락했다.

최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33억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급주택에 외제차까지 굴리며 호화생활을 누려왔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최씨를 소환해 조사한 후 검거했다. 국세청은 최씨가 탈루한 소득세 16억원을 추징했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최씨를 고발 조치했다.

사채업자 2백53명에 탈루 세금 추징

국세청은 최씨처럼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하거나 폭행·협박·인신매매 등의 불법 채권추심으로 서민을 괴롭혀온 악덕 사채업자 2백53명을 조사해 이들이 탈루한 세금 1천5백97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24건은 조사 중이다.

사채를 갚지 못한 대학생을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넘기고 업소로부터 사채대금을 대신 받은 조덕칠(가명·54)씨, 영세상인들로부

일수대출 조견표 (연 39퍼센트일 경우, 단위 : 원)

기간 \ 대출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10일	100,588	201,177	301,765	502,943	704,120	1,005,886	2,011,772	3,017,658
20일	50,562	101,125	151,688	252,814	353,939	505,628	1,011,257	1,516,885
30일	33,888	67,776	101,664	169,441	237,217	338,882	677,764	1,016,647
40일	25,551	51,102	76,654	127,757	178,859	255,514	511,028	766,542
50일	20,549	41,099	61,649	102,748	143,847	205,496	410,993	616,490
60일	17,215	34,431	51,646	86,077	120,508	172,155	344,310	516,465
70일	14,834	29,668	44,502	74,171	103,839	148,342	296,684	445,027
80일	13,048	26,097	39,145	65,242	91,339	130,485	260,970	391,455
90일	11,659	23,319	34,979	58,299	81,618	116,598	233,196	349,795
100일	10,549	21,098	31,647	52,745	73,843	105,490	210,981	316,472
110일	9,640	19,280	28,921	48,202	67,483	96,404	192,809	289,214
120일	8,883	17,766	26,650	44,417	62,184	88,834	177,668	266,503
130일	8,243	16,486	24,729	41,215	57,701	82,430	164,860	247,290
140일	7,694	15,388	23,082	38,471	53,859	76,942	153,884	230,826
150일	7,218	14,437	21,656	36,093	50,531	72,187	144,374	216,561
160일	6,802	13,605	20,408	34,013	47,619	68,027	136,055	204,083
170일	6,435	12,871	19,307	32,179	45,051	64,358	128,717	193,076
180일	6,109	12,219	18,329	30,549	42,769	61,098	122,197	183,296

※ 2011년 6월 27일 대부계약부터 연 39퍼센트를 초과한 이자는 불법으로 무효이므로 초과분은 상환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원금충당 및 이자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자를 위한 금융지원 상담은 현재 1천5백59건이 진행 중(1천7백51건 종결)이다.

법률구조공단은 접수된 5백58건 중 13건에 대해 소송지원을 하기로 결정했고, 2백9건은 법률 지원을 위해 상담 중이다. 나머지 3백36건은 이미 종결됐다.

무료법률상담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소송지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지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지원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청구이의의 소 소송지원 ▲불법사금융업자가 제기한 대여금청구 피고 대리 소송지원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기타 피해 구제에 적합한 소송지원 등이다.

서민·취약계층 위해 현장상담반 가동

국무총리실 산하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는 5월 18일 열린 5차회의 결과 '대출금리 계산서 발급' '법률 소송 서비스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10대 수칙' 등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시행 후 달라진 점 세 가지를 정리해 발표했다.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피해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대출금리 계산서 발급은 5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금감원 피해신고센터(본원 및 4개지원)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우편 및 팩스(FAX)를 통해 대출금리 계산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누구나 서비스받을 수 있다.

시행 중인 '법률 소송 서비스 지원'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전담팀을 구성, ▲불법 고금리 ▲불법 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이나 개인회생·파산신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본부 '법률지원' 총괄 TF팀을 운영하고, 18개 지부, 40개 출장소에 있는 '법률 지원 전담팀'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86명, 전문 상담인력 등 총 1백81명을 투입했다.

▲법정 이자율 ▲불법추심 ▲보이스피싱 등 유형별 피해 예방 요령 등을 담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10대 수칙'과 대출금액(1백만원~3천만원) 및 기간(10일~1백80일)별 일일 상환액을 표시한 일수대출 조견표도 지자체와 경찰청, 미소금융중앙재단 등을 통해 배포 중이다.

또한 피해신고가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상담반'을 가동하고 있다. 현장상담반은 대학가·전통시장·지하철역 등을 방문해 피해신고 접수 등 현장상담과 피해예방을 위한 수칙을 알려주고 있다. 현장상담 과정에서 금융지원이 필요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를 통해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G

글·서철인 기자

문의 www.klac.or.kr

일러스트 · 유재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10대 수칙

❶ 법정이자율(등록업체 39퍼센트, 미등록 및 개인 간 거래 30퍼센트)을 초과한 이자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 등을 요구하세요!

❷ 폭행 · 협박 등을 통해 불법추심을 당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녹화 ·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서(☎112)나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❸ 대출상담 시 신용등급 조정비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이므로 상담을 중단하고, 피해발생 시 신속하게 경찰서(☎112)에 신고하고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❹ 대출 시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거래하세요!(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에 문의)

❺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❻ 대출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돌려받으세요!

❼ 경찰서,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금융정보 또는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❽ 대출신청 전에 한번 더 본인의 소득과 이자부담을 생각하세요!

❾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 수준과 상환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증빙자료를 남겨서 혹시 있을지 모를 분쟁에 대비하세요!

❿ 본인의 능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활용하세요!

자료 금융감독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피해 유형별 신고 접수 현황 (단위 : 건, %)

유형별		대출사기	고금리	보이스피싱	불법채권추심	불법중개수수료	기타 피해	제도상담 등	전 체
일반상담	건수	1,524	1,785	**2,010**	522	291	395	7,275	13,802
	비율	7.6	8.9	**10.0**	2.6	1.4	2.0	36.1	68.5
피해신고	건수	**2,872**	1,050	12	384	664	172	1,188	6,342
	비율	**14.3**	5.2	0.1	1.9	3.3	0.9	5.9	31.5
계	건수	4,396	2,835	2,022	906	955	567	8,463	20,144
	비율	21.8	14.1	10.0	4.5	4.7	2.8	42.0	100.0

※**기타피해** 미등록 대부업, 불법 대부광고, 유사수신

자료 금융감독원

터 고리이자를 차명계좌로 받아 이자수입 25억원의 세무 신고를 고의로 누락시켜 온 박일원(가명·47)씨, 상장주식을 담보로 대주주에게 유상증자 가장납입 자금을 대여하고, 연체 시 주가를 조작한 후 대량매매 등으로 소액주주를 울린 탈세 대부회사 대표 김광운(가명·45)씨 등이 세금 추징과 함께 법의 처벌을 받았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선언한 지 한 달이 되면서 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두고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현재(5월 18일)까지 2만1백4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청(4천여 건)과 지자체(1백여 건)에 접수된 것까지 합하면 2만4천여 건에 이른다. 피해신고 금액은 5백29억원에 달한다.

악덕 사채업자 24명 검거, 검찰에 송치

유형별로 대출사기가 4천3백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금리 2천8백35건, 보이스피싱 2천22건이 뒤를 이었다. 별도의 구제 절차가 필요 없는 일반문의도 8천4백63건이나 됐다. 연령대별로는 경제활동 인구인 30~50대가 81.7퍼센트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20대 청년층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정부는 접수된 피해신고 가운데 5천1건을 수사기관에 넘겼고, 3천3백69건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5백58건은 법률구조공단에 알려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 대상 5천1건 중 17건(24명 검거)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거된 사채업자들은 고금리 사채와 빚 독촉으로 채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성매매까지 하게 만든 악덕 업주들이다.

5월 2일 인천에서 검거된 성매매업주와 조폭 등 13명은 사채 빚을 진 여성들을 유인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시켰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2천4백50만원의 현금보관증을 강제로 작성케 했다. 검찰은 이들 중 죄질이 나쁜 2명을 구속했다.

5월 3일 강원도 원주에서 검거된 조직폭력배 등 3명은 택시기사 71명을 상대로 1백17회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9백27퍼센트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피해자 중 한명은 1백56회에 걸친 이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기업형 사채업자 4명이 최초로 검거됐다. 이들은 중소기업 50개 업체를 상대로 총 1백25억원 상당을 연 2백97퍼센트의 고금리로 대출해 준 후 상환이 안 되자 담보어음을 부도처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이들의 자금원을 역추적하고 있으며 배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에 송치한 건 외에 4천5백94건의 피해신고는 경찰이 수사 중(3백90건은 수사 종결)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캠코와 서민금융기관은 물론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을 통해 지원한 금액이 4억5천만원(58건)에 이른다.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택시운전기사 A씨는 교통사고 처리비용 1천여만 원을 대부업체 세 곳에서 연 39퍼센트의 고금리로 빌렸으나 갚을 길이 없어 피해신고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했다. 캠코는 상담을 통해 A씨의 금융 상황이 바꿔드림론 지원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신청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금융 · 법률지원 활발

A씨는 2개 대부업체에 상환해야 할 8백80만원을 바꿔드림론으로 지원받아 고금리 채무에서 벗어났다. 또한 1백90만원을 상환해야 할 나머지 1개 대부업체 건은 바꿔드림론을 추가 신청해 해결할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B씨는 재래시장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대부업체에서 1천만원을 대출했다. 이후 A씨는 39퍼센트대의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맘고생을 했다. 이 같은 고충을 파악한 현장상담반은 B씨에게 새희망홀씨 상품을 안내했다. B씨는 국민은행을 통해 1천만원을 대출받아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빌린 돈을 상환했다.

수입물가 '뚝뚝'… "FTA효과 실감나네"

병행수입품 '통관인증제' 등 통해 수입품 가격 인하 유도

자유무역협정(FTA)의 수혜자는 수출기업만이 아니다. 소비자들 역시 최대 수혜자 가운데 하나다. 관세가 사라지면서 소비재 가격 인하 여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수입 완제품은 물론 수입 원자재를 활용한 국산제품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FTA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FTA가 물가안정의 도우미로 거듭나고 있다.

조선DB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을 현지에서 구입하고 국내로 반입할 때 낮아진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병행수입품 통관인증세를 실시해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유럽을 여행하고 돌아온 J씨는 한·유럽연합(EU) FTA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J씨는 독일에서 4백70유로(70만원 상당)을 주고 핸드백을 구입해 돌아왔다. 미화 4백달러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와 관세가 부과된다. 한·EU FTA가 발효되기 전이라면 약 5만원의 관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절반인 2만5천원가량만 내도 됐다. 한·EU FTA가 적용돼 세율이 뚝 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은 지역을 여행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 현지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영수증만 꼼꼼하게 챙겨도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이다.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관세가 철폐된 품목이라면 한푼의 관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소비자들의 FTA 혜택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적용 대상은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으로 개인 소비 목적의 반입 물품이다. 절차는 간단하다. 세관신고서의 FTA 협정세율 적용란에 체크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관 현장에서 즉시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세금 고지서를 발행해 준다. 단, 미화 1천 달러가 넘는 고가품의 경우엔 영수증 외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구입물품도 관세인하 혜택

FTA의 수입품 가격안정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지난 5월 21일부터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병행수입품이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자가 별도의 채널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입한 제품을 가리킨다.

병행수입품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관세청이 인터넷 등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병행수입품은 독점수입품에 비해 품목에 따라 5~40퍼센트 싸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입된 '정품'임에도 위조상품으로 오해하는 소비자도 적잖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관세청이 도입한 통관인증제는 관세청이 해당 수입품에 '통관표지'를 붙이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불안을 완화해 병행수입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병행수입품이 활성화하면 전체 수입품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격이 저렴한 병행수입품과 독점수입물품의 가격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의 통관표지는 QR코드 방식으로 제품에 표시된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수입자와 품명, 상표명, 모델, 원산지, 통관일자, 통관세관 등 다양한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QR코드를 부착할 수 없는 밀수품과 위조물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효과도 바랄 수 있다.

FTA 발효 후 수입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제품도 적잖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EU산 수입 전기다리미의 가격은 한·EU FTA 발효 전에 비해 15.1퍼센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외 지역에서 수입된 제품이 9.6퍼센트 상승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소형가전제품 가격 모니터링… 불공정거래 예의주시

판매점별로는 온라인몰의 가격이 가장 저렴했다. 온라인몰의 가격은 백화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의 81.9퍼센트 수준이었다. 사후서비스(AS) 등의 문제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의 경우 수입업체가 AS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백화점을 1백으로 보았을 때 전문점이 99.9, 대형마트 94.6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수입 전기다리미의 추가 가격하락 여력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입 전기다리미의 유통수익률은 1백30퍼센트에 달한다. 1백원에 수입해 2백30원에 파는 격이다. 유통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이익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유통구조가 단순한 전문점과 대형마트의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산 전기다리미를 포함한 소형가전제품 시장은 일부 수입업체의 과점체제로 이루어져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가격 모니터링 과정에서 수입업체나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 모니터링 정보는 스마트컨슈머에서 확인할 수 있다. G

글·변형주 (이코노미플러스 기자)

한국소비자원 스마트컨슈머 www.smartconsumer.go.kr

FTA 체결국별 원산지증명 면제대상

협정	원산지증명 면제대상	금액	용도
EU	(대상) 비상업적인 사인 간 소포·여행자 수하물 (금액) 미화 1천달러 이하	비상업용	1천달러 이하
EFTA	(대상) 비상업적인 사인 간 소포·여행자 수하물품 (금액) 미화 1천달러 이하	비상업용	1천달러 이하
칠레	(금액) 미화 1천달러 이하 (대상) 상업적 수입 : 송장에 원산지 자격 증명하는 진술요구 비상업적 수입 : 면제	상업용까지 제한허용	1천달러 이하
싱가포르	(금액) 미화 1천달러 이하	제한없음	1천달러 이하
페루	(금액) 미화 1천달러 이하	제한없음	1천달러 이하
미국	(금액) 미화 1천달러 이하	제한없음	1천달러 이하
인도	(대상) 사인 간 소포·여행자수하물 일부 물품 (금액)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름	비상업용	국내법규 적용
ASEAN	(대상)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송부된 원산지·우편물품 (금액) FOB 가격기준 미화 2백달러 이하	제한없음	2백달러 이하

※ (국내규정) FTA 특례법 시행령 10조 : 1천달러 이하 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면제 **자료** 관세청

한·미 FTA 2개월 성과

세계경기 위축에도 대미 수출입 '오름세'

한·미 FTA가 발효되고 2개월이 지났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은 모두 하향세를 나타냈다. 수출은 4퍼센트, 수입은 2.3퍼센트 줄었다. 세계경제의 위축 탓이 크다. 유럽은 재정위기의 늪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했고 중국마저 성장세가 주춤한 상태다. 국제무역이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하지만 미국과 무역은 뚜렷한 상승세였다. 수출과 수입이 각각 11.3퍼센트, 2.0퍼센트 늘어났다. 특히 FTA의 적용을 받는 품목의 신장폭이 컸다. 자동차부품과 석유제품 수출증가율은 19.4퍼센트로, 받지 않는 품목의 증가율(6.9퍼센트)을 크게 앞질렀다. 수입도 마찬가지다. 오렌지와 레몬 등의 수입증가율(3.4퍼센트)이 전체 수입증가율(0.7퍼센트)을 상회했다.

자동차와 석유제품의 수출이 특히 많이 늘었다. 2.5~4퍼센트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 자동차부품이 15퍼센트 늘어났다. 완성차 수출도 급증했다. 관세인하가 유예됐음에도 동반 기대심리로 31퍼센트나 증가했다. 석유제품에서는 제트유가 전체 수출증가(42퍼센트)를 이끌었다. 전체 석유제품 수출의 66퍼센트를 차지하는 제트유에 부과되던 52.5퍼센트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서 수출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FTA의 성과가 단기간임에도 크게 나타나는 것은 활용률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출활용률이 58.7퍼센트로 한·아세안(3.5퍼센트)이나 한·인도(17.7퍼센트) FTA 발효 1년 후 활용률을 크게 앞섰다. 지난해 발효된 한·EU FTA의 활용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미FTA 활용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 무더위… 폭우 등 재난경보 조기 가동

10월 15일까지 비상대응 체제… 여름철 풍수해 '꼼짝 마!'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해에는 폭우가 뒤따르는 사례가 많았다. 올 봄에도 벌써 기온이 30도를 넘나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방재청은 여름철 예상되는 기습 폭우와 태풍에 대비,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봄날'인 5월 전국의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나드는 한여름 같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해에는 어김없이 폭우가 뒤따랐던 것이 예년의 사례. 이른 더위가 찾아왔던 지난 2011년 여름에는 기상관측 기록을 경신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63명에 달하는 인명피해를 낳았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나섰다.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서상덕 과장은 "금년 여름철 극한 기상에 대비, 인명피해 및 서민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가을이 시작되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방재청이 수립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은 다음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피해 예상 지역에 전담 관리자 배치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처럼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확대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를 상황을 미리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

전국 2천96곳에 달했던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2천5백87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각 우려 지역에 전담관리자를 배치해 평상시의 정기점검을 강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담관리자를 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 평상시에도 피해예상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2 반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 등 확대

폭우가 쏟아질 때 큰 피해가 예상되는 대상은 상대적으로 부지가 낮은 반지하주택이다. 이에 대비해 빗물을 막기 위한 방수판, 스며든 빗물을 재빠르게 뽑아낼 수 있는 자동펌프 등을 수도권 전체에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5월 현재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상가 5만9천4백85가구 중 46퍼센트에 달하는 2만7천6백41가구에 침수방지 시설을 완비했으며, 아직까지 설치가 끝나지 않은 1만3천9백29가구에 대해서도 6월 말까지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또 침수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만7천9백15가구에 대해서는 1천6백만개에 달하는 모래주머니와 2만4천1백70대에 달하는 양수기를 현장에 비치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3 지하철 역사 빗물유입 차단시설 설치

2011년 여름 기습폭우가 쏟아졌을 당시 서울 광화문은 물바다로 변했다. 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의 5백72개 지하철 역사 출입구 2천8백39개소에 빗물유입을 차단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구체적으로 출입구 계단의 턱을 높여 빗물이 쏟아져 들지 못하게 막는 곳이 5백71개소이며, 방수판을 설치하는 곳이 2천1백66개소, 환기구를 통해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벽을 설치하는 곳이 5백81곳, 자동펌프를 설치해 침투한 빗물을 재빨리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곳이 2천3백49곳이다.

이경호 기자

여름철 기습 폭우와 태풍으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재민 구호는 신속하게 하고,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간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직원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4 올림픽도로·강변북로 긴급통제 체제 운영

서울 올림픽도로와 강변북로에서 침수가 예상되는 구간은 총 2백45개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구간에 긴급통제 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폭우가 쏟아져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홍수통제소가 수위 정보를 제공하고, 이는 각 경찰서와 도로관리청에 전달돼 교통을 적절히 통제하게 되며, 긴급정보 서비스와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전국민에게 알리는 시스템이다.

5 서민들 재난지원금 7일 이내 신속 지급

그래도 피해가 발생해 재난을 당한 서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재난을 당한 서민에게는 피해발생일로부터 7일 안에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원, 이재민들이 역경을 딛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했다.

6 풍수해 보험금 지급 2배 이상 증액

정부는 풍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풍수해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이는 주택이 무너지거나 살림살이가 떠내려가 생활이 곤란해진 서민들에게 큰 힘이 돼 왔다. 올해부터 풍수해 보험금 규모를 기존 3천만원에서 7천만원 규모로 2배 이상 크게 늘렸다. 경기도 이천의 경우 1백제곱미터 규모의 일반주택 보유자가 보험료 3만원을 납입하면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7천만원의 보험금을 한번에 받을 수 있다.

7 하천범람 예상지역 등 모니터링 강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천의 범람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수해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해상황 분석·판단 시스템을 활용, 3천8백33개소에 달하는 하천범람 예상지역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3천4백62개의 강우 관측시설, 5천4백79대의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일러스트 · 신영훈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서정표 사무관은 "무엇보다도 재해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그래도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재민 구호는 신속하게 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구는 완벽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G

글·이범진 기자

황포돛대의 꿈 낭만뱃길 열렸다

5천톤급 선박 두 척 교차해 운항 가능

서울 강서구 개화동과 인천 서구 오류동을 연결하는 경인아라뱃길. 5월 25일 개통식에 맞춰 화물선이 서해갑문통제소를 통과하고 있다.

인천 앞바다와 한강을 잇는 최초의 내륙 뱃길, '경인아라뱃길'이 5월 25일 정식 개통했다.

서울 강서구 개화동 한강 분기점(한강)에서 인천 서구 오류동(서해)에 이르는 길이 18킬로미터, 폭 80미터, 수심 6.3미터의 인공수로다. 이는 5천톤급 화물선 두 척이 교차해 지나갈 수 있는 규모다.

개통식 당일에는 한서호(3천96톤급)가 컨테이너를 싣고 중국 칭다오항으로 출항했다. 앞으로 한서호는 이 뱃길을 이용해 경인항과 칭다오항을 오가며 컨테이너를 운송하게 된다. 모두 3개의 갑문을 갖춘 경인아라뱃길의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에서는 부산과 포항 등 국내 도시뿐 아니라 중국 칭다오, 베트남, 몽골, 러시아 등의 해외 10개 도시를 왕복하는 선박 18척이 운항한다.

지난해 10월 29일 시범운영을 시작한 여객유람선은 6개월 만인 지난 4월 23일 이용객이 이미 10만명을 돌파했다. 여의도~김포, 김포~인천, 아라뱃길~서해 4개 섬(덕적도, 팔미도, 세어도, 이작도)을 연결하는 총 9척의 여객선은 정식 개통과 함께 앞으로 더욱 활발히 승객을 실어 나르게 된다.

경인아라뱃길은 평상시엔 뱃길로 이용되고 홍수가 나면 인천의 굴포천과 한강의 물을 서해로 흘려보내 상습침수 구역이었던 부평, 부천, 계양과 김포 일대 지역의 수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로 역할을 하게 된다.

5월 25일 경기도 김포시 김포여객터미널에서 아라뱃길 개통식이 진행됐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등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하는 제막식을 갖고 있다.

수변 공간은 관광·레저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한강에서 끊겼던 자전거도로(총 41.3킬로미터)는 아라뱃길을 따라 나란히 서해까지 이어진다. 이 밖에 아라뱃길 남쪽 드라이브코스(15.6킬로미터)인 아라 파크웨이를 비롯해 아라뱃길 주요 지점에는 수향(水鄕) 8경(景)으로 대표되는 아라폭포, 전망대, 섬마을, 수향원 등 다양한 볼거리와 생태공원 등이 마련돼 시민들을 맞는다. G

글·박근희 기자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터키 아이스크림. 산양유와 쌀가루를 섞어 달지 않으면서 쫀득하다(왼쪽 사진). 터키관 내 레스토랑에서는 터키 전통 음식인 케밥류를 판매한다(오른쪽 위). 맥주 안주로 인기가 높은 즉석 닭꼬치 구이(일본 푸드코트).

1 시래기 된장국에 통장어를 넣어 시원한 맛이 일품인 붕장어탕. **2** 호주관에서 선보이고 있는 캥거루갈비찜. 우리나라의 소꼬리찜과 유사하다. **3** 앙골라인들이 즐겨먹는 '팜오일을 곁들인 콩과 생선요리'. 앙골라관 레스토랑에서 맛볼 수 있다.

지구촌 산해진미 여기 다 모였네

국제관 곳곳에 세계 음식 모여 '엑스포 별미' 자랑

볼거리 많은 여수엑스포에는 방대한 행사장 규모만큼이나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다. '음식 엑스포'라 이름 붙여도 좋을 만큼 전통 한식부터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음식을 고루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중 내외국인 관람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엑스포 별미'들을 소개한다.

여수엑스포 행사장 안에는 전문음식점을 비롯해 곳곳에 푸드코트가 마련돼 있어 관람 도중 어디서든 지친 몸을 쉬면서 허기를 채울 수 있다.

한식당으로는 국제관 A 1층에 뚝배기 불고기와 곰탕을 파는 '장수진곰탕'과 해물순두부·부대찌개 등을 먹을 수 있는 '놀부'가 있고, 비빔밥 전문인 '백스비빔익스프레스'(국제관 B 2층), 한방삼계탕·해초비빔밥이 주메뉴인 '우가온'(국제관 C 1층), 장어 전문점 '여해'(국제관 D 지하) 등이 있다.

붕장어탕·철판스테이크 등 메뉴 다양

이 중 '여해'는 여수 별미인 장어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 보통 장어를 얼큰하게 끓이는 일반 장어탕과 달리 여해의 통장어탕은 5~6센티미터 길이로 토막 낸 붕장어를 뼈째 곤 육수에 된장을 풀고 시래기를 넣어 만든다.

김영수 사장은 "말간 된장국이 시원하게 속을 풀어줘 해장용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다"며 "칼칼한 맛을 원한다면 테이블마다 비치된 양념을 풀면 되지만 함께 나오는 갓김치와 깍두기를 국물에 넣고 밥을 말아 휘휘 저어 먹는 것이 가장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1인분에 3만원으로 비교적 고가이지만 하모 샤브샤브도 '여해'의 인기 메뉴다. 하모는 갯장어 혹은 참장어라고도 하는데 한여름 몇 달 동안만 잡히는 귀한 어종이라 준비된 곳이 많지 않다고 한다. 살만 발라 장어 육수에 살짝 데쳐 야채와 함께 먹으면 연한 육질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듯 부드럽다.

장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갓비빔밥을 권한다. 여수 특산품인 갓김치를 잘게 썰어 여러 가지 야채와 함께 비비는 것으로 갓김치 특유의 톡 쏘는 맛이 일품이다.

이 밖에도 국제관 B 2층에는 베트남식 스프링 롤과 소고기쌀국수를 맛볼 수 있는 '포로이'와 국수전문점인 '0410국수', '마카오반점', '카레왕', '마성옥'(돈개장, 묵밥 등), '오동도'(해물칼국수, 불고기덮밥 등), '거문도'(낙지덮밥, 해초비빔밥 등) 등이 모여 있는 푸드코트가 있다.

또한 국제관 D 지하에는 일식전문점 '사쿠라', 중식당 '조부관'이 있고, 다양한 일식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일본 푸드코트'가 마련돼 돈가스, 카레라이스, 나가사키짬뽕, 초밥 등을 판매한다. 아사히맥주와 함께 안주로 곁들여 먹을 수 있는 타코야키, 닭꼬치 구이도 즉석에서 구워 내 입맛을 돋운다. 두툼하게 썰어 철판에 구워 내는 철판스테이크가 특히 인기다. 바로 옆에는 수제돈가스와 함께 자장면, 짬뽕, 탕수육 등의 중식을 맛볼 수 있는 '타워차이'와 도시락전문점인 '오벤또'가 있다.

아쿠아리움 맞은편에는 전복갈비탕, 냉면, 비빔밥, 오므라이스 등을 판매하는 넓은 푸드코트(푸드 캐피탈) 외에도 '롯데리아', '캐빈도넛', '나뚜루' 등 간단한 식사나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곳도 마련돼 있다.

캥거루갈비찜 등 각국 전통음식 선보여

한편 국제관에는 자국의 음식을 홍보하기 위해 별도의 레스토랑을 마련한 부스가 많아 각 나라 전통음식을 맛보기 위한 미식가들로 북적인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호주관의 캥거루갈비찜. 정확히 말하자면 캥거루 꼬리뼈찜으로, 모양이나 맛이 우리나라의 소꼬리찜과 비슷하다. 호주에서 가져온 캥거루꼬리뼈를 갈비 양념에 재워 오븐에 구워 내는 것으로 기름기가 거의 없어 육질은 다소 퍽퍽하지만 담백하고 쫄깃하다. 과자처럼 바삭한 파이를 한 입 베어 물면 따뜻한 스테이크와 잘 녹은 치즈의 고소함이 입안 가득 퍼지는 '미트 파이'도 별미다. 식사류를 구입한 고객들에게는 시음용으로 호주산 '옐로 테일' 와인도 한 잔씩 서비스한다.

스페인관에 마련된 '타바스 바'에서는 스페인 전통요리인 타파스와 빠에야를 맛볼 수 있고, 터키관 내 레스토랑은 세련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입소문이 났다. 터키 전통음식인 케밥류가 주메뉴다. 여기에 터키식 피자인 파데와 동그랗게 부풀린 전통빵 라와시 등을 판매한다.

앙골라관 레스토랑은 흥겨운 아프리카 민속공연을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는 곳. 앙골라 토산품과 그림 등을 소품으로 활용해 현지 분위기를 한껏 살린 식당 안에 작은 무대를 마련, 매일 두세 차례 공연을 한다. 최대한 현지식에 가까운 맛을 내기 위해 대부분의 식재료를 앙골라에서 공수해 온다.

두 명의 앙골라인 셰프가 음식을 만드는데, 그날 그날의 재료에 따라 메뉴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한다. 레스토랑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클라우디아 산타나 씨는 앙골라 사람들이 주식처럼 먹는 것이라며 '팜오일을 곁들인 콩과 생선요리'를 내왔다.

다진 토마토, 양파, 레몬, 올리브오일, 식초 등을 고명처럼 얹은 카쿠소(앙골라산 민물고기)는 새콤달콤한 소스 덕분에 생선 특유의 비린내가 거의 없고 담백했지만 팜오일로 버무린 콩은 짭짤했다. 산타나 씨는 "앙골라가 더운 나라라 한식에 비해 비교적 음식이 짠 편"이라고 설명했다.

모히토 등 음료와 이색 스낵 부스도 재미 쏠쏠

음식이 부담스럽다면 전통음료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 러시아관에서는 러시아 국민 술로 불리는 보드카에 민트, 라임, 사탕수수 설탕, 스프라이트에 얼음을 채운 러시아식 모히토를, 스리랑카관에서는 홍차에 우유를 넣은 밀크티를 판매한다.

이 밖에도 거리 곳곳에 스낵 부스들이 설치돼 있어 출출함을 달래기에 그만이다. 그중 가장 자주 눈에 띄는 것이 산양유와 쌀가루를 섞어 쫀득한 식감이 일품인 터키 아이스크림. 전통복장을 한 터키 현지인들이 마치 떡을 치듯, 아이스크림을 치는 모습은 색다른 볼거리다. G

글·최선희 객원기자 / 사진·서경리 기자

빅오쇼 시스템을 가동하는 기기실. 관람석 뒤편에 마련돼 있다. 남재헌 빅오쇼 사업단장의 지휘 아래 5~6명의 스태프가 매일 밤 좀 더 멋진 쇼를 연출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힘들어도 세계 유일의 쇼 진행 자부심"

다양한 기술 결합된 첨단 멀티미디어쇼… 돌발상황 대비 늘 긴장

여수엑스포 해상문화공간에서는 매일 밤 특별한 공연이 열린다. 바다에 세워진 원형의 해상구조물 '디오(The-O)'에서 펼쳐지는 '빅오(Big-O)쇼'가 바로 그것. 물과 불, 빛이 어우러진 이 첨단 멀티미디어쇼는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여수엑스포의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았다. 빅오쇼 뒤에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시스템을 가동하는 스태프들이 있다. 화려한 무대 뒤 좁은 공간에서 기기들과 씨름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그들을 만났다.

밤 9시가 가까워 오자 해상문화공간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3천 석 스탠드는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일부 관람객들은 지대가 높은 아쿠아리움 쪽 테라스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다. 모두 9시30분에 시작되는 빅오쇼를 보기 위한 인파였다.

그 시각, 스탠드 뒤쪽에 마련된 기기실에서는 남재헌 빅오쇼 사업단장의 지휘 아래 5~6명의 스태프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분수, 영상, 조명, 레이저 등의 상태를 최종 점검했다. 기기와 모니터, 공연이 펼쳐질 무대를 번갈아 응시하는 눈빛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누구 하나 말을 꺼내는 사람도 없었다. 남재헌 단장은 "공연 직전인 지금이 가장 예민해지는 시간"이라며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하지만 예기치 않은 돌발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주 다양한 기술이 결합된 첨단 멀티미디어쇼이다 보니 설치도 복잡하지만 그것을 한 치의 오차없이 가동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다 예기치 못한 상황들도 가끔 발생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전산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돌발상황이 생긴다 해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보다 완벽한 공연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빅오쇼 앞에 진행되는 해상쇼와 수상페스티벌 공연이 8시30분에 끝나기 때문에 그 무대를 정리하고 나면 저희에게 주어지는 준비 시간은 20분 정도밖에 안 되지요.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점검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쇼 시작 20분 전 긴박감 최고조에 달해

9시30분, 공연이 시작되자 해상 분수들이 일제히 리듬에 맞추어 하늘로 솟구쳤다. 조명이 더해지면서 화려한 물줄기들이 춤을 추는 모습은 장관 그 자체였다.

곧이어 높이 47미터, 지름 41미터의 거대한 빅오가 얇은 물막의 워터스크린으로 변신하는가 싶더니, 50여 개의 조명과 레이저를 이용한 3D 애니메이션이 펼쳐졌다.

매일 밤 9시30분에 펼쳐지는 빅오쇼. 여수엑스포의 대표적인 볼거리로 자리 잡았다.

물과 불, 빛이 만들어내는 이 첨단 멀티미디어쇼에 관람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기기에 온 마음과 몸을 집중하고 있던 스태프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매일 반복되는 힘겨운 일과지만 관람객들이 보여주는 이처럼 뜨거운 박수와 호응은 이들에게 힘이자 보람이다.

대표적 볼거리로 자리 잡아 뿌듯

빅오쇼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현재 남재헌 단장을 비롯해 7~8명 정도. 한시적 프로젝트인 박람회의 특성상 정규 팀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며 계속 변화하고 있다.

쇼의 기술적인 부분과 연출을 담당한 프랑스 ECA2사의 경우 기술팀은 모두 철수한 상태. 쇼 디자이너이자 연출가인 제임스 탐스만 남아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쇼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빅오쇼사업단 소속 직원에게 전수하는 중이다. 제임스 탐스는 ECA2의 주요 작업에 참여한 베테랑으로 빅오쇼 연출 실무자로 활약했다.

미국의 WET사 소속인 세르지오 디비아는 해상분수쇼를 총괄하고 있다. 여수에서 일한 지 7개월째 되었다는 그는 "아름다운 바다를 끼고 있어 분수쇼를 하기에는 정말 멋진 환경"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한국인 스태프로는 조성원, 홍유리, 김유빈 팀장이 있다. 이들은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빅오쇼를 이끌어가기 위해 새롭게 채용된 인력. 조성원 팀장은 전체 오퍼레이션을, 홍유리 팀장은 분수·조명을, 김유빈 팀장은 음향을 맡았다.

세 사람 모두 멀티미디어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실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새롭게 배우는 중이다. 이 밖에 워터젯과 화염 담당 업체 직원이 각각 1명씩 상주하고 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시스템 안정화 단계에 투입돼 초기부터 이 작업을 지켜본 사람은 남재헌 단장이 유일하다.

남 단장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소속으로 중장기 항만 기본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해왔다. 그러다 2010년 1월, 빅오쇼사업단 신설과 함께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상 공사는 익숙한 분야였지만 멀티미디어쇼는 전혀 몰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그는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알았다면 시작도 안했을 것"이라며 웃었다.

각종 콘서트·공연 조명, 음향까지 관리

빅오쇼 외에도 각종 콘서트나 공연에 필요한 조명, 음향을 모두 이곳에서 관리하고 있어 한국인 스태프들은 상시 대기 상태다. 기기를 반납받고, 마무리하는 작업을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대형 콘서트의 경우 리허설이 새벽까지 이어져 밤샘을 하기도 한다.

남 단장은 "몸이 고된 것은 둘째치고, 아직은 시스템상에서 소소한 에러들이 발견돼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그래도 빅오쇼가 여수엑스포의 대표적인 볼거리로 자리 잡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빅오쇼 스태프들은 한 치의 실수도 없는,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힘은 들지만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쇼를 선보이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는 그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글·최선희 객원기자 / 사진·서경리 기자

6월 한 달간 야간 입장권 1만6천원에 판매

여수 밤바다도 보고 절반값에 엑스포도 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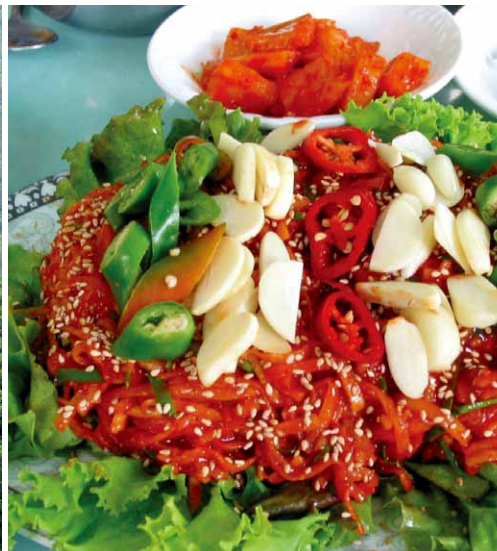
여수 밤바다가 보고 싶은가.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판매되는 여수엑스포 야간 입장권의 혜택을 잡고 볼 일이다.

야간 입장권은 일반 입장권(3만3천원)의 절반도 안 되는 1만6천원이며, 예매 없이 당일 매표소에서만 판매한다. 입장은 저녁 6시부터 가능하며, 아쿠아리움을 제외한 박람회장 내 모든 시설(전시관, 야간공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입장권과 달리 재입장은 할 수 없으며 당일만 사용가능하다.

야간 입장권은 수도권 등 원거리 방문자들의 야간 시간대 관람수요 창출과 남해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 여수 주변 도시 거주 직장인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평일 야간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박람회장 이용의 효율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위 나홍채 입장권 부장은 "야간 입장권 도입은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박람회를 즐기고자 하는 알뜰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될 것이다"며 "아름다운 경관조명과 함께 즐기는 여수세계박람회 야간 관람은 관람객들에게 낭만적인 여름밤을 선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백나무 숲이 울창한 여수 오동도. 여수세계박람회장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며 방파제로 연결돼 있어서 걸어서 갈 수 있다.

돌산도 금오산 절벽에 세워진 향일암.

여수 사람들이 즐기는 서대회.

"여수 바다를 보면 당신도 시인이 된다"

소설가 한승원이 일러주는 '여수의 멋과 맛'… 엑스포가 열리면서 세계 향해 날갯짓

전남 장흥이 고향인 작가는 젊은 시절 여객선을 타고 여수에 갔다가 밤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곤 했다. 그는 서울행 기차를 기다리며 여수항의 해안통에서 저녁밥을 먹고 갈매기가 날개에 황혼을 실은 채 나는 것을 바라보곤 했다. 누구보다 여수를 사랑하는 작가 한승원씨가 여수의 맛과 멋에 대해 논했다.

여수는 시드니 못지않은 아름다운 항구다.

항구는 '우주적인 자궁'의 딴 이름이라고 내 사전에 기록되어 있다. 들락거리는 배들이 남성이라면 항구는 여성이다. 항구는 소비적이면서도 생산적인 사공이다. 먼 세계의 바다와 미래를 향해 활짝 열려 있다. 바다가 인류 미래의 블랙박스라고 한다면 항구는 그 미래 꿈의 초입인 것이다.

여수 바닷가에서, 먼바다로부터 달려온 파도와 갯바위가 만나는 것을 보면 신화의 속살이 보인다. 신화는 살아 꿈틀대는 여성성의 바다와 남성성의 육지가 맞닿은 부위에서 생성된다.

여수라는 항구도시와 여수 앞바다에 널려 있는 섬들을 깊이 읽어 보면 바다와 생명과 세계와 우주가 동의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바닷물은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구름은 비가 되어 육지의 산과 들에 뿌려지고 물은 지표면을 타고 흐르거나 지하수가 되어 바다로 되돌아간다. 순환이다. 바다의 해류와 세상의 모든 생명체와 우주가 다 순환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것이다.

여수는 낭만적인 섬이다. 여수는 아름다운 항구인 여수로 읽히기도 하지만, 먼 곳에서 찾아온 나그네가 바닷가 여관방에서 한등을 밝히고 싱싱한 생선회와 소주와 고독을 즐기는 여수(旅愁)로 읽히기도 한다.

젊은 시절 동경의 대상이었던 여수항

가곡 '여수'는 이렇게 시작된다. "깊어 가는 가을밤에 낯설은 타향에 외로운 맘 그지없이 나 홀로 서러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나그네 아닌 사람이 있으랴. 여수항은 젊은 시절 내 동경의 대상이었다. 교통이 요즘처럼 발달하지 않은 그 시절, 나는 내 고향 장흥의 섬에서 서울에 갈 때 영산포역을 경유하여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회진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여수로 가서 밤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곤 했다. 기차 시간을 앞두고 나는 여수항의 해안통에서 저녁밥을 먹고 갈매기가 날개에 황혼을 실은 채 나는 것을 보고, 장군도를 휘돌아 들어오는 통통배들을 바라보고 있곤 했다.

인문학적인 탐사를 하면서 여수를 둘러보면 그 맛이 더욱 좋을 수 있다. 여수는 좌수영이 있던 곳이다. 그 유물은 진남관이라는 거대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이순신 장군이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남쪽 바다 전체를 지켰다.

해안통에선 서대회에 소주 한잔이면 그만

이제는 여수에서 세계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그것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했고, 새로운 길이 여수를 향해 뚫렸고, 새로운 다리들이 여수를 향해 놓였다. 이 땅 사람들은 물론 세계 사람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여수에 가면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확인할 수 있다. 여수는 이제 세계를 향해 날아간다.

여수는 돌산도를 비롯하여 많은 섬을 거느리고 있다. 여수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그 섬들에는 가두리 양식장, 전복 양식장이 많다. 일반 어망들로 인해 생산된 도미 우럭·농어·낙지들이 여수로 실려 나간다. 그 섬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여수를 키우고 있다.

나는 광주와 서울에서 살 때 혼자서 여수 여행을 하곤 했다. 해안통 식당에서 바다를 내다보며 서대회에 소주를 한잔 걸치곤 했다. 샛서방(금풍쉥이) 고기를 먹기도 했다. 그것은 도미의 일종인데, 하도 맛이 좋아서 여자들이 자기 남편에게 주지 않고 감추어 두었다가 정부에게만 준다는 고기다.

여수에서 가 볼 만한 곳은 오동도다. 거기에서는 동백꽃을 보는 재미가 있다. 그곳은 혼자서 사색을 하며 거닐어도 좋고, 정분 있는 사람과 함께 걸어도 좋다.

돌산도와 여수 사이에 다리가 놓인 다음에는 구불구불한 차도를 따라 차를 달려 향일암까지 가는 노정도 좋다. 향일암은 돌산도 끝의 절벽 위에 있는 자그마한 암자다. 암자 마당에 서서 일망무제로 탁 트인 바다를 보는 운치는 혼자서 맛보기 아깝다.

인근 여관방에서 자고 이튿날 아침 해 떠오르는 것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많은 사람이 떠오르는 해를 신앙한다. 바야흐로 바다 저편에서 솟아오르는 해를 가다듬은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

여수를 중심으로 널려 있는 섬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고기잡이하며 사는 어부들의 모습을 살피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여행의 한 멋이고 보람이다. '시인과 어부'라는 시를 쓴 적이 있다.

묽은 안개너울이 피어오르는 바닷가에서 낚시질하는
늙은 어부에게 다가간 시인이 간절히 말했다.
좋은 시를 쓰고 싶소, 바다의 말씀을 들려주시오,
늙은 어부는 새끼손가락을 강물에 담갔다가
하늘로 들어올리고, 그 끝에 맺혔다가 떨어지는
물방울 한 개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물방울 관음보살은
속살이 훤히 비치는 고혹적인 성장을 한 채
오른손에 버들가지를 들고 왼손에 정병을 들고 있는데
그것은 버들가지로 정병 속의 생명수를 묻혀
중생들에게 뿌리려는 몸짓이오,
바다가 그러하듯
천국은 한 개의 물방울에서 시작됩니다.
'시인과 어부' 전문

여수 바다와 마주 앉게 되면 당신도 시인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의 철학자가 될 수도 있다. G

글·한승원 (소설가)

gonggam.korea.kr

"대한민국에 상상력을 입혀라!"

2012 카툰 공감 만화공모전

공모분야

초등학생 : 캐릭터 만화
중·고생 및 일반·대학생 : 웹툰·카툰·스토리만화 등 장르 구분 없음
❖초등학생 : 나도 한류스타 – 세계가 인정한 미래의 내 모습(대중연예인 제외)
❖중·고생 : 위대한 문화유산 –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재, 전통문화 달인·장인 등
❖일반·대학생 : 에너지 코리아 –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등

공모기간 2012년 5월 25일~7월 18일

시상내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대상, 지도교사상)/시상금 총 830만 원

제출자료

❶응모작품[규격 : A4(16절), A3(8절) 중 택1, 분량 제한 없음]
❷응모지원서(작품 뒷면에 부착, 작품당 1부, gonggam.korea.kr에서 다운로드)
*컴퓨터로 작업할 경우 300dpi 이상 설정 후 출력물 제출(e-메일 제출 가능)
*출품 수 제한없으며, 개인 및 팀(4인 이하) 가능

보내실 곳

❖우편(방문) : (110-360)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만화공모전 담당자
❖e-메일 : gonggam2012@gmail.com

문의 홍보콘텐츠과(02-3704-9987)

※ 자세한 내용은 공감코리아(www.korea.kr),
위클리공감(gonggam.korea.kr)에서 참고하세요.

gonggam2012 gonggam2012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기획특집

"한국 물관리 기술 넘버원" 세계가 4대강에서 배운다

가뭄과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시작한 4대강살리기 사업이 착공 4년을 맞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대강살리기가 지난해 홍수를 성공적으로 막아내며 한국의 물관리 기술에 대해 학계·언론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기술제휴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강변을 따라 이어진 자전거길과 아름다운 풍광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도 보여주고 있다. 출발 당시 기대와 우려를 함께 전하던 해외 반응은 이제 4대강살리기가 목표했던 모습과 기능을 갖춰가면서 감탄스럽다는 반응과 더불어 생명의 강으로 지속될 수 있는 유지 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모이고 있다.

한국의 물관리 기술이 세계로 흐른다

2025년 세계인구 절반이 물 부족… '물 안보'도 점차 이슈화

물이 '블루골드'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등으로 오는 2025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물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 물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물산업 육성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가장 근대적 통합 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4대강살리기 사업이 통합적인 물관리 사례로 글로벌한 주목을 받고 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4대강살리기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며 해외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제19차 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 참석했던 일부 국가대표들과 외신기자단이 상주보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물과 식량 안보'. 지난 3월 12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주최로 열린 제6차 세계 물 포럼의 주제였다. 세계물포럼은 물 분야 최고 논의의 장이다.

물과 식량은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와 가뭄 같은 재난이 빈발하고 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물이 안보 요소로까지 부상했다.

세계물위원회의 루익 포숑 회장은 물 안보 개념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10일 서울에서 개최된 2012 글로벌녹색성장서밋에 참석, "앞으로 물 안보는 글로벌 토론 현장에서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태국 대홍수도 '물 안보' 중요성 높여

지난해 태국에서 발생한 대홍수는 전 국토의 70퍼센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도 물 안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해 주었다. 사상자만 8백50명, 물적 피해는 8백57억 달러에 이르며, 아직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다. 미래의 물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3일 발표한 '물의 세계적 중요성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농업을 위해 필요한 물의 양이 60퍼센트 증가해야 추가적인 20억명에 대한 식량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인용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물 관리 종합보고서'는 물 부족 인구 수가 현재 29억명이지만, 2030년에는 39억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30년의 추정 세계인구는 80억 명이니 세계인구의 절반이 물 부족 인구인 셈이다.

'2011 유엔미래보고서'는 이보다 앞서 2025년이면 세계인구의 절반이 물 부족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물 부족'을 '15대 미래 도전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수자원 고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물산업이 발달하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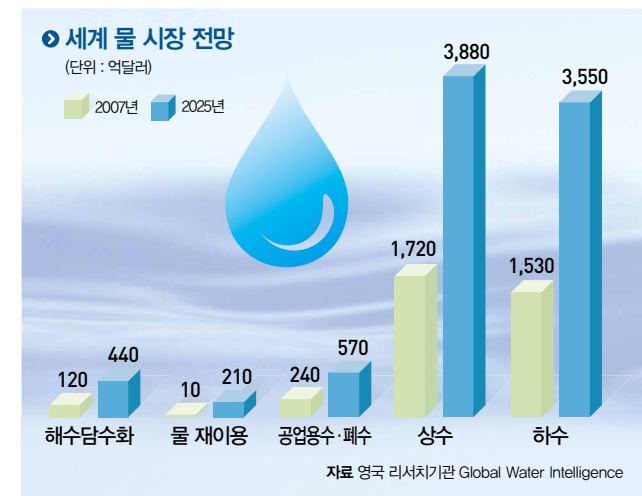
영국의 물 전문 조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는 세계 물 시장 규모가 2010년 4천8백28억 달러에서 2025년 8천6백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물 시장 규모(2010년 기준)는 반도체(2천8백억 달러)나 조선(2천5백억 달러)의 2배 규모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다.

'블루 골드' 물 시장 1퍼센트 점유 목표 세워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세계 물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최근 16인치 역삼투분리막을 세계에서 세번째로 개발하며 증발식 해수 담수화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물 시장 점유는 세계 11위, 점유율은 0.4퍼센트이다. 미국, 일본, 중국이 물산업 규모 면에서 세계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점유율은 낮지만 다행스럽게 세계 물 시장이 우리나라가 현재 진출한 상하수와 해수담수화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5월 23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제18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17년 세계 물 시장 점유율을 1퍼센트로 높인다는 목표 아래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물산업 육성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물산업 육성대책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 집중투자 ▲중앙정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차원의 플랫폼 구축 ▲투자자금 확보를 위한 글로벌 물전문 펀드 조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물전문 대학원 설립 등과 함께 4대강살리기 사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대강살리기를 통해 축적된 최첨단 물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브랜드화하여 하천종합정비, 수생태계 복원, 수질개선, 통합 물관리 시스템 등 새로운 시장을 선점한다는 내용이다.

OECD는 지난 3월 7일 공개한 'OECD 환경전망 2050' 물챕터에서 "물 이용 증가 및 관련 경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수자원관리가 이행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4대강살리기를 수자원관리와 녹색성장에 관한 통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 사례로 소개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물산업 지원에 분주하다. 물부족 국가는 안보 차원에서, 기술보유국은 신산업으로 물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주요국들은 국가전략 수립 등으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높은 평가

이런 가운데 전 국토를 흐르는 4대강에서 치수·이수·수질·환경·지역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통합 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4대강살리기에 여러나라 정부와 언론, 학계 등 해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5년 열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은 대구에서 열린다. 낙동강이 흐르고 강정고령보가 위치한 대구는 4대강살리기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세계물포럼은 세계적 물 논의의 중심이자 물산업 정보 교류의 장으로까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4대강살리기를 진정한 '블루골드'로 매듭지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는 셈이다. G

글·박경아 기자

4대강살리기 사업에 해외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면서 각국 정상급 인사들의 4대강 방문도 이어졌다. 왼쪽 사진은 지난 3월 25일 경기도 여주군 한강 이포보를 방문한 태국의 잉락 친나왓 총리. 오른쪽 사진은 지난해 5월 한강 공사현장을 방문한 오마르 카바즈 모로코 국왕 고문.

5월 4일 K-water는 중국 인촨시와 '아이허강 수계정비 조성사업 공동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총체적 물관리' 최신기술 축적에 관심

모로코, 태국, 중국 등 홍수·가뭄·수변관리 MOU… 외국 지도자들 방문 잇따라

전 세계적으로 홍수와 가뭄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심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치수'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모로코, 태국, 중국, 파라과이 등의 국가가 4대강살리기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다.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 등은 4대강 시설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다. 4대강이 기술협력을 통해 바다 건너 외국으로 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4대강살리기 사업 기술의 해외수출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방한해 4대강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관심을 표한 나라도 있고, 이미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나라도 있다. 한국 고유의 '치수' 기술이 해외로 나가는 교두보가 마련된 셈이다.

모로코
동시다발 홍수·가뭄… 새 치수전략 모델로 꼽아

지난 3월 26일 우리나라의 국토해양부와 모로코의 에너지광물수자원환경부는 양국 정부를 대표해 '수자원 관리 및 4대강사업의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모로코는 치수에 어려움을 겪어 온 나라다. 연평균 강수량이 4백밀리미터에 불과한 데다, 무엇보다 지역별 편차가 50~2천밀리미터로 매우 크다. 국토 이곳저곳에서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특히 지난 10년간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잦았다. 2008년 발생한 홍수로 2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2010년에는 7만5천명이 홍수피해를 보았다. 2002년부터 시행한 수해예방 대책은 홍수피해 예방에 별 효과가 없었다. 이 때문에 모로코 정부는 새로운 수자원 관리 전략을 세우려던 참이었다.

오마르 카바즈 모로코 국왕 고문은 지난 2010년 11월과 2011년 5월에 방한해 한국의 치수기술을 살폈다. 2010년 방한은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물과 위생에 관한 자문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카바즈 고문은 브리핑 내용을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에게 보고했고, 국왕은 4대강살리기 사업을 모로코의 새로운 치수전략을 위한 모델로 삼으라고 했다고 한다.

2011년 카바즈 고문은 수자원환경국무장관 등 각료와 함께 방한해 한강 이포보 등 4대강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지난 3월 포아드 도이리 에너지광물수자원환경부 장관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고, 국토해양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태국
차오프라야강 준설 등 종합물관리 방안 제안

태국도 4대강살리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태국 양국 간의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한 상황이다.

태국은 지난해 10월 홍수로 큰 피해를 보았다. 홍수가 발생했을 당시 한국을 방문한 수라퐁 토비착차이쿨 태국 외교장관은 이포보 현장을 방문해 "4대강살리기 사업 노하우를 태국에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 태국을 방문해 잉락 친나왓 총리와 면담하고, 올해 1월에는 태국에서 열린 홍수방지를 위한 콘퍼런스와 국제포럼 등의 자리에서 태국 측에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실무협의를 추진해 왔다.

이후 지난 3월 25일 친나왓 태국 총리가 방한해 이포보를 방문했다. 현장을 둘러본 친나왓 총리는 4대강살리기 사업 관계자들과 수자원 관리 기술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별 4대강 수출 추진현황 및 계획

구분	추진현황 및 계획
태국	•금년 중 수자원관리 기술협력을 위한 MOU 체결 및 통합물관리 시스템 사업 입찰참여('12.10) 추진
모로코·알제리	•한·모로코 간 강관리, 수자원개발, 홍수예방 등의 협력에 관한 MOU 체결('12.3.26) •한·알제리 MOU 체결 추진 중('12년 중)
중국	•K-water, 인촨시와 수계정비 관련 기술협력 MOU 체결('12.5)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13개 강 복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한·인도네시아 정부의 관련 부처와 KOICA가 공동 추진 중
베트남	•세계은행이 자금(5천만 달러)을 투자하는 '베트남 누에-다이강, 동나이강 수질개선사업' 수주 추진 중

자료 녹색성장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친나왓 총리는 "이포보에 직접 와 보니 구조물과 자연이 적절히 잘 조화되어 건설된 것 같다"며,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홍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보 주변에 자전거길 등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했다.

태국은 수해복구를 위해 올해에만 4억2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장기 수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에 약 1백16억 달러의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태국의 중장기관리 시스템 구축에는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 네덜란드, 중국, 미국 등이 관심을 보이고 각종 지원 및 협력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중국 인촨시
북서부 사막도시의 인공하천 수계정비 MOU

중국도 한국의 4대강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 5월 4일 중국 인촨(銀川)시 지방정부와 '아이허강 수계정비 조성사업 공동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촨시는 닝샤후이족자치구의 성도다. 중국 북서부 사막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물이 부족해 지난 2008년 황허(黃河)에서 물길을 끌어들여 1백58킬로미터 길이의 인공하천을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아이허강이다. 최근에는 '서북지역 물의 도시'라는 목표를 정하고 아이허강 주변에 한국의 4대강살리기와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벤치마킹해 친수 공간과 생태탐구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인촨시에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 노하우를 전수한다.

모로코와 태국, 중국 이외에도 파라과이, 알제리가 4대강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와는 이달 말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파라과이 공공사업부와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협력 내용을 조정하는 등 실무적 절차를 완료했다. G

글·하주희 기자

"생태적인 측면까지 선제적이고 역동적"

통합적 물관리 경험과 기술에서 긍정적 해답 찾기 나서

가뭄이나 홍수 같은 물로 인한 재해 이외에도 수력발전, 용수공급 등 다양한 물 관련 고민들을 안고 있는 여러 나라 학자들이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통합적 접근을 통해 물 관리에 대한 총체적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4대강살리기 사업이 새로운 물 관리 모델이 될지에 대한 관심으로 4대강을 찾는 해외 학자들은 경탄 어린 반응과 더불어 학자적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모든 것에 감명받았습니다. 계획대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 느껴지고, 생태학적 측면을 비롯해 모든 면에서 아주 선제적이고 역동적입니다."

지난 5월 18일 경기도 여주군의 한강 강천보를 찾은 뉴질랜드 아쿠아링크 연구소(Aqualinc Research)의 선임 지하수 수문연구원 헬렌 루터 씨의 소감이다.

루터 씨는 2012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5월 17, 18일 강원랜드 컨벤션호텔) 참석차 방한했다가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이날 강천보를 방문한 외국 학자 11명 중 홍일점이었다.

루터 씨는 "다른 나라는 어떤 특별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란 측면에서 물 관련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한국은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많은 것을 담아 총역량을 갖고 시행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고 평가했다.

자국의 물 고민에 대한 해결 실마리 희망

이날 강천보를 찾은 외국 학자들은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초청강연을 한 존 트레이시 미국 아이다호대학 물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해 미국, 뉴질랜드, 중국, 일본에서 온 대학교수나 물 관련 연구원들이었다.

이들의 안내를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실의 정건희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5월 한국수자원학회가 열렸을 때에도 뉴질랜드 학자들이 특별히 요청해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며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물 관련 연구원들도 4대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뉴질랜드는 전체 전력의 56퍼센트를 수력발전으로 생산할 만큼 수력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이날 현장 방문에 참석한 뉴질랜드 수문학회 집행위원 에드먼드 브라운 씨는 한국수자원학회에서 "뉴질랜드에서 가장 긴 강인 와이카토강(총길이 4백30킬로미터)에서 뉴질랜드가 필요로 하는 전력의 25퍼센트를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인근 지역의 물 수요가 많아지며 전력생산 감소 우려가 높아져 강물 사용 억제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며 우리와 또 다른 뉴질랜드의 물 고민을 전했다.

이들 일행은 먼저 강천보 한강문화관에서 4대강살리기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한국의 전통적 요소와 첨단 정보기술(IT)이 결합한 다양한 전시물을 통해 4대강살리기의 필요성과 진행과정 등을 둘러보았다. 특히 '소통의 강'이란 테이블영상은 터치스크린을 만질 때마다 탁한 강물이 맑아지며 연꽃이 피어나고 물고기가 노닐고 사람 손을 피해 달아나기까지 하는 모습에 감탄하기도 했다.

한강문화관 관람을 마친 뒤 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강천보 공도교를 건너 약 4킬로미터쯤 떨어진 강천섬까지 라이딩을 했다. 몇몇 학자는 강천보 위에서 자전거를 멈추고 어도, 가동보와 물 흐름 등을 유심히 관찰했다.

일본 규슈대 산림자원학과의 교이치 오츠키 교수는 "2년 전에 한국수자원학회 분들을 만났을 때 4대강살리기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잘 만들어진 모습을 보니 놀랍다"며 "여러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특히 자전거도로는 매우 잘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박경아 기자

5월 18일 경기도 여주군의 강천보 한강문화관을 찾은 외국 학자들이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4대강살리기 사업을 알리는 전시물들을 둘러보고 있다.

"3년 뒤에도 사람들이 계속 오면 진정한 성공"

그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지금부터 3년을 보아야 합니다. 3년 뒤에도 지금처럼 사람들이 계속 오게 되면 그건 진정 성공한 사업인 것이지요."

외국 학자들은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적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우리와 이웃인 일본 학자들의 관심은 높았다. 지난해 11월 10일 일본의 환경일본규조학회 회장 마야마 시게키 교수(도쿄학예대 생명과학부)를 포함한 일본의 환경·생태 분야 전문가 4명이 대구의 낙동강 강정고령보를 둘러봤다. 국내 세미나 참석차 방한했던 이들이 스스로 4대강살리기 현장 방문을 요청한 것이다.

조선DB

지난해 11월 대구의 낙동강 강천고령보를 찾은 일본인 학자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낙동강을 살펴보고 있다.

마야마 교수는 당시 "일본 하천에서도 하천정비작업으로 수질이 좋아져 녹조류가 사라지자 대신 규조류가 대량으로 번식하는 문제가 생겼다"며 "지속적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환경·생태 분야 등 학자적 충고도 제시

중국 수리수전과학연구원의 왕하오 교수 등 중국 학자들도 5월 24일 한강 이포보를 방문했다. 이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최한 제9회 한·중 건설기술 공동세미나 참석차 우리나라를 찾았으며, 세미나 첫날인 5월 22일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의 특별초청강연을 듣고 여러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중국수리수전과학연구원은 주요 국가 수리 프로젝트 및 개발계획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 여주, 대구, 광주 등 4대강 인근 대학 혹은 연구기관과 교류를 하는 해외 학자들의 발걸음은 4대강살리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곳저곳으로 이어졌다.

4대강살리기 사업 초기 해외 학자들의 반응은 우려 반 기대 반이었다. 지난 2009년 9월 21일 미국 예일대의 산림환경대학원 온라인미디어 'Yale Environment 360'에는 '4대강살리기사업 : 경제촉진제인가 쓸데없는 짓인가?(Korea's Four Rivers Project : Economic Boost or Boondoggle?)'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우리의 4대강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펼쳐졌고, 지금 그 해답을 해외 학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찾아보는 중이다.

글·박경아 기자

대구 세계물포럼 시설점검 위해 방한한 루익 포숑 회장

"한국의 물관리 기술 국제사회에 도움"

물 관련 세계 최대 국제기구인 세계물위원회 집행이사들이 최근 낙동강 강정고령보를 방문했다. 오는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개최지로 예정된 대구 엑스코(EXCO) 시설을 점검하고 4대강살리기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세계물위원회 집행이사회의 낙동강 방문은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국제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수자원 관리의 생생한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에도 잘 소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대구 낙동강 강정고령보를 찾은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루익 포숑 회장(프랑스)이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호평했다. 포숑 회장을 포함한 세계물위원회 집행이사단은 오는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개최지로 예정된 대구 엑스코(EXCO) 시설을 점검하고 4대강살리기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 11일 대구를 방문했다.

이번 시찰에는 포숑 회장과 함께 베네디토 브라가 부회장(브라질)과 집행이사 도안 알틴빌렉(터키), 제롬 델리 프리스콜리(미국), 안드라스 솔라기나지(헝가리), 박은경 한국물포럼 총재 등 6명이 참가하고, 프랑스 마르세유시의 마틴 바샬 부시장이 동행했다.

이날 오전 집행이사단은 먼저 강정고령보 통합관리센터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30여 분간 '4대강살리기 사업의 물기술 및 보별 관리'에 관한 브리핑을 들은 뒤 현장으로 나섰다. 디지털카메라로 주요 시설을 촬영하는 등 보 이곳저곳을 꼼꼼하게 둘러본 집행이사단은 규모와 실용성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세계물위원회의 루익 포숑 회장(오른쪽)과 집행위원들이 낙동강 강정고령보를 방문해 통합관리센터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에 관한 브리핑을 듣고 있다.

포숑 회장은 "4대강살리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평가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하지만,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적 수준의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수질·수량·홍수통제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비친다"며 "'물과 녹색성장'의 이론적 개념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용된 사례로서 개발도상국을 비롯해 전 세계 국제 물 커뮤니티에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집행이사단이 강정고령보 공도교 중앙에 위치한 전망대인 '탄주대'에서 보를 둘러보던 중 집행이사의 한 명인 제롬 델리 프리스콜리 박사는 탄주대와 물풍금(물이 넘어가면서 소리를 내는 물길)을 가리키며 "이런 시설을 만들 생각을 한 게 누구냐"고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세계적 물 전문가인 프리스콜리 박사는 "회의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는 답변에 "아주 아름답다. 이런 놀라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다"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다음은 이날 포숑 회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강정고령보를 찾은 이유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세계물위원회는 미국과 터키, 브라질, 유럽연합(EU) 등이 시행 예정인 강 복구와 댐 건설 등 굵직한 안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4대강살리기 사업에 최신 물 관련 기술이 대거 사용됐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집행이사들도 최신 기술을 사용한 한국의 경험을 알고 싶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둘러본 시간이 짧아 전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국제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수자원 관리의 구체적 사례로 판단됩니다. 홍수예방과 물 공급, 수질 보호, 생태계 보호를 통합 관리한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2015년 7차 세계물포럼에서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슈가 될지 궁금합니다.

"한국 정부는 세계물위원회와 공동으로 '물과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에서는 물이 중요합니다. 4대강살리기는 녹색성장을 이론적 개념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용한 사례죠. 녹색성장에 대해 국제사회가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유용한 답안이 될 것입니다."

> **2015 대구세계물포럼**
>
> **40여 개국 3백여 단체 회원… 2천억원 경제효과**
>
> 2015년 대구에서 세계물포럼을 개최하는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물 관련 국제 네트워크 기구이다. 세계물위원회는 1996년 프랑스에서 설립되어 세계 각국의 수자원 관리를 개선하고 물을 보호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3년마다 세계물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
> 현재 40여 개국에서 3백10여 단체가 세계물위원회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물포럼, 한국수자원학회가 참가하고 있다.
>
> 세계물포럼은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회의다. 각국 정부와 전문가, 비정부기구(NGO)가 한자리에 모여 물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전후해 개최되며 국가수반회의, 장관급 회의, 지역별 회의, 주제별 세션, 세계물엑스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리는 세계 최대 물 관련 행사다.
>
>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으로 약 2천억원의 경제효과와 1천9백명의 고용창출이 전망된다. 올 3월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제6차 세계물포럼에는 약 2만5천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고령보 같은 시스템을 본 적이 있으신지.

"시대별로 최고의 사례는 존재했지요. 20년 전에는 브라질에서, 40년 전에는 미국에서 대규모 치수사업을 벌였으나, 매번 똑같은 기술이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4대강살리기는 가장 현대적인 치수 기술을 총동원한 가장 최근 사례입니다. 2015년 7차 세계물포럼 전까지 세계 각국의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물위원회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세계물위원회는 물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는 단체입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에게 물은 정치적 어젠다에 앞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설득하는 일을 합니다. 이를 위해 '물 안보'(Water Secutiry)라는 개념을 창안했습니다. 세계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물과 생태계 보호가 필수적이라는 개념입니다."

물 안보는 환경보호와 어떻게 다른가요.

"물 안보는 환경보호보다 큰 개념입니다. 물은 식량이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자원이지요. 경제 발전도 물이 없으면 안됩니다. 이곳 대구만 해도 물(낙동강)을 기반으로 발전하지 않았나요. 물은 생태계 안정에도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G

글과 사진·남창희 객원기자

유후~! 지난 4월 28일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열린 주한 외국인 대상 수변관광레저 체험행사 참가자들이 금강 자전거길을 따라 백제보 인근을 지나고 있다.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이임 전 남한강 자전거길을 달리고 있다(위쪽 사진). 외국인 대상 수변관광레저 체험행사 중 하나인 금강 카약 트레킹.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 자전거길에 감탄

"카약 트레킹 등 수변레포츠 즐기기 · 역사문화 연계 관광 훌륭"

4대강살리기 사업은 최신 공법과 현대적 디자인을 갖춘 수자원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의 역사 · 문화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문화관광 요소다. 최근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개통하면서 녹색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자전거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에서 가장 긴 강이 한강의 두 배쯤 되는 길이의 루아르강(1천20킬로미터)이다. 루아르 강변에는 1990년대 중반부터 조성된 총연장 8백킬로미터의 자전거길 '라 루아르 아 벨로(La Loire à Vélo)'가 유명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루아르 강변을 달리는 이 자전거길 가운데 자전거전용도로는 24퍼센트가량이며, 자전거길을 따라 '라 루아르 아 벨로'란 라벨을 가진 숙박업소 1백10개가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 수변공간의 문화관광 활용현황 시찰을 위해 이곳을 다녀온 한국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의 노영순 책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각 구간별로 혹은 세분화된 20여 개의 자전거 패키지여행품이 개발되어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으로 '녹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자전거가 덩달아 '뜨고' 있다. 자전거가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으로 애용되고, 자전거여행이 녹색관광의 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문화관광과 관련해 4대강살리기에 눈을 돌릴 때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분야가 역시 자전거길이다.

1천7백57킬로미터 자전거길은 관광자원

지난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기점으로 총연장 1천7백57킬로미터에 이르는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개통됐다. 4대강 자전거길은 길이만 놓고 볼 때 '라 루아르 아 벨로'의 3배가 넘는다.

자전거 개통식과 동시에 개막한 국제사이클연맹 공인 도로사이클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 2012'에 참가한 외국 선수들과 임원들은 공식 개통된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처음으로 접하는 외국인이 됐다.

이번 대회에 영국 여성연합팀을 이끌고 참가한 존 마일스 영국 사이클협회장은 충주에서 영주 사이의 새재길을 가장 아름답고 환상적인 구간으로 꼽으며 그곳을 '퀸스 스테이지(Queens stage · 가장 중요한 구간에 대한 영국인의 호칭)'라고 부를 만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마일스 회장은 자전거도로 이외에도 대도시 바깥 지역까지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나 편의시설들에 대해서도 호평했다.

"중간중간 휴식공간 · 매점이 아쉬워요"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충남 부여의 금강 백제보에서 금강하구에 이르는 금강권역을 방문해 문화관광 측면에서 4대강을 둘러보았다.

지난 4월 28일부터 1박2일간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열린 주한 외국인 대상 '수변관광레저 체험행사'에는 인도,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도미니카공화국 등의 주한 외국대사 부부 등 외교관들과 국내 대학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 초 · 중 · 고등학교의 원어민 영어교사 등 약 60여 명의 주한 외국인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부여 구드래조각공원과 백제보를 왕복하는 자전거 타기를 즐겼으며, 부소산성길 걷기와 같은 백제 역사문화 체험, 금강 카약 트레킹 등 다양한 수변레포츠와 관광을 즐겼다.

이번 행사 참가자들 역시 자전거길이 가장 인상적이라는 반응들이었다.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의 바크티요르 이브라지모프 부대사는 "이렇게 장거리 라이딩을 한 것은 열여섯 살 때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충남 서산 가사초등학교에서 3년째 원어민 교사로 근무하는 캐나다인 콜린스 아프람(남) 씨는 "자전거길이 적당한 오르막내리막이 있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으로 라이딩을 즐겼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 참가자들은 여러 체험을 마친 후 매점, 외국어 안내표지판과 안내책자 등을 더 많이 비치했으면 하는 바람과 자전거길 중간중간 휴식공간과 그늘, 음용수를 구할 곳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4대강살리기는 자전거길 완공 이전부터 수변관광의 새로운 촉매제가 될지 세계 문화관광계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19차 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 일부 참석자, 외신 기자단 등 40여 명이 10월 13일 안동 하회마을, 상주보를 잇달아 방문해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과 최신 공법, 현대적 디자인으로 조성된 보 시설과 수변을 돌아보았다.

9월 12~16일 '낙동강 국제물주간 행사' 열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지난해 이임하기 직전인 10월 18일 4대강 자전거길 남한강 팔당대교~양수리 구간을 달려보고 "정말 좋다"며 "한국에 더 있을 수 있다면 4대강 자전거길을 전부 돌아봤을 텐데"라고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이들 이외에도 많은 외국 정부 관계자, 언론인 등이 4대 강변을 찾아 새로운 수변 문화관광 요소로서의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오는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안동~상주~대구 등 낙동강 수변도시에서는 '제1회 낙동강 국제물주간 행사'가 개최된다. 이 기간 중 안동에서는 국제물포럼과 국제수변도시 시장회의가 개최되고, 상주에서는 청소년 물 체험캠프 등이 열리며, 대구 엑스코에서는 국제물산업전이 각각 개최된다.

새 모습을 갖춘 수변 친수공간과 16개 다기능 보를 포함하는 4대강의 활용은 우리의 역사, 전통, 문화와 어우러져 이렇게 시동을 걸고 있었다. G

글 · 박경아 기자

1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국 조지아주립대 학생들은 4대강 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의 성과에 놀라워했다. 5월 9일 경기도 여주군 강천보를 찾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강천보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2 학생들은 4대강살리기 사업의 진행과정과 예상 효과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 학생이 질문하고 있다.
3 강천보 물문화관에서 학생들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학생들은 한국의 선도적 물 관리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소감을 남겼다.

미국 조지아주립대생 25명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

"한국의 강에서 건강한 생태계를 봤습니다"

지난 5월 9일 미국 조지아주립대 학생 25명이 경기도 여주 강천보를 찾았다.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2주간 한국을 방문한 학생들이다.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 중, 강천보의 아름다운 경관과 친환경적인 4대강살리기 사업의 성과에 깊이 감명받은 케이틀린 래니(Kaitlyn Ranney)와 4대강 사업에 드러난 한국의 기술력과 효율성을 높이 평가한 사라 홈시(Sarah Homsi)의 소감을 소개한다.

케이틀린 래니 | 조지아주립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자전거도로에서의 굉장한 경험 오래 간직"

자전거 바퀴가 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소리가 들리고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에 불어와 뺨에 나부낍니다. 두 다리는 쉴 틈 없이 페달을 밟고 있지요.

드넓은 한국 강을 지나가는 제 얼굴에 미소가 떠날 줄 모르고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높아집니다. 자전거를 타면서도 디지털 카메라로 경치를 담느라 여러 번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저는 이 굉장한 경험을 최대한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생생한 자연의 움직임, 사람들의 소리, 따스하고 신선한 공기.

여행에서 느낀 감각은 초월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평소의 생각을 버리고 온몸으로 직접 느끼게 되니까요. 한국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지아주립대 대학원생인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주최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먼저 놀라운 성과부터 확인했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네 개의 큰 강에서 홍수 조절, 수질 향상, 생태계 복원을 이뤄내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이 이뤄진 바로 그곳에 서서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지 사업적인 성과만을 목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짝거리는 강을 따라 난 3마일의 자전거도로에서 살아 숨 쉬는 건강한 생태계를 직접 보고 만졌습니다. 우리는 미국인이지만 한국인들이 이 강을 보고 느낄 감동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강은 수도 서울 시민의 식수원입니다. 깨끗한 강에서 수영을 할 수도 있지요. 강을 따라 달릴 때 사람들은 이 사업이 마련해 준 일자리들, 사업 덕분에 장마철에도 안전해진 강변 등 놀라운 경제적 이익에 대해 말했습니다. 거기에 저는 이 활기찬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한국인들이 부러워졌습니다.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도 이 사업을 접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딱딱한 활자로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제가 느낀 것처럼 깊은 감명을 받을 수 없었겠지요. 저는 아름답게 구원된 강을 따라 달리며 초월적인 경험을 선사받았습니다. 부드러운 산들바람, 빙글빙글 돌아가는 자전거 바퀴, 떠나지 않는 미소가 제 마음에 진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사라 홈시 | 조지아주립대 로빈슨 경영대학

"4대강은 한국에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 줄 것"

조지아주립대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의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을 방문한 것입니다. 안전한 자연을 만드는 4대강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강은 농사의 기본인 물을 공급해 주지만, 장마철에는 재앙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엄청난 복구 비용은 사회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충분히 예방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왜 매년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4대강살리기 사업은 강바닥 준설, 지천 정비, 보 건설로 이런 고통에 대비합니다. 나아가 강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위해 가장자리 물길을 유지하면서도 전력을 공급할 친환경발전소를 짓는 등 자연을 보전할 방책도 고민해 마련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미래에 부족해지고 나서야 귀중함을 깨닫게 될 수자원 확보에 들어갈 비용을 미리 절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학도로서 저는 항상 사업 진행 방식과 관리 방식을 신경 써 봅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에는 엄청난 돈과 자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안내하던 책임자는 사업이 예정된 기간 안에 진행되고 있고 짜인 예산을 크게 초과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랐습니다.

이 사업이 4개 강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소한으로 줄이려 노력했을 겁니다.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도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람들의 건강한 공동체 의식과 생활방식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강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동안 손 흔들어 준 시민들, 조깅하는 부부, 유모차를 끌고 가는 어머니를 눈여겨보면서 아직 무엇인지 모르지만 위대한 것이 자라고 번성할 곳이 바로 여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강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심신도 건강하게 할 것이고요. 한국의 가장 값진 자산, 4대강이 겪은 혁신과 열망이 이 나라에 더 나은 미래를 안겨줄 것입니다. G

정리·김효정 기자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대강살리기는 1석6조 효과 거둘 사업”

4대강살리기, 경인아라뱃길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이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 2020년까지 ‘글로벌 물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고 전체 매출의 절반을 해외사업에서 달성한다는 목표로 해외에서의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water의 김건호 사장을 만났다.

이광민 기자

김건호 K-water 사장은 4대강살리기 사업을 ‘국토를 재창조한 1석6조의 사업’이라고 했다.

김건호(67) K-water 사장의 얼굴은 볕에 그을려 있었다. 악수를 위해 내미는 손도 마찬가지였다. “현장에 자주 나가냐”는 물음에 “세어 보진 않았지만 1주일에 3일 이상은 현장에 나가는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다. 배석한 오중석 언론홍보팀장은 “지금까지 4대강 공사 현장만 3백번 넘게 돌아봤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K-water 내에서 김 사장의 별명은 ‘대표 현장소장’이라고 한다.

K-water는 1967년에 세워졌다. 한국수자원개발공사라는 이름이었다. 창립 이후 지난 45년간 우리나라의 수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해 오고 있다. 소양강댐을 비롯한 16개의 다목적댐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33개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 운영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4대강살리기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인터뷰 내내 “미래에는 물 경쟁력, 즉 수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water가 표방하는 것 또한 ‘세계 최상의 물 종합 서비스 기업’이다.

K-water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일 텐데요. 유엔은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엔은 국민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이 1천7백톤 이하인 국가를 물 스트레스(부족) 국가로 지정합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쓸 수 있는 수자원량이 1천5백53톤에 불과해요. 연평균 강수량은 1천2백77밀리미터로 비교적 풍부하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실제로 1인당 쓸 수 있는 수자원량은 적은 거죠.

게다가 계절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큽니다. 우리나라 강수량의 3분의 2가 여름철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뭄 시 가용 수자원량이 부족한 거죠.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최근 기후변화 현상 때문에 가뭄발생 주기가 단축됐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평균 13년에서 14년마다 가뭄이 왔는데 이제는 7년마다 가뭄이 오고 있어요. 또 지난 40여년 동안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물 이용량이 6.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이 낙동강 창녕함안보 건설현장을 돌아보고 있다. 김건호 사장은 지금까지 4대강 공사현장만 3백번 넘게 돌아봐 ‘대표 현장소장’이라는 별명이 있다.

곧 완료될 4대강살리기 사업이 물 부족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13억톤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홍수조절 용량은 9억2천만톤으로 늘어났고요. 4대강이 홍수와 가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났다는 의미죠. 지난해 장마 때 4대강 본류의 수위는 준설하기 전보다 2미터에서 4미터가량 낮았습니다. 지류의 수위도 낮아졌고요. 지난해와 비슷한 정도의 비가 2006년에도 내렸는데, 그때와 비교할 때 홍수 피해가 10분의 1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김 사장은 4대강살리기 사업이 ‘1석6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했다. ‘수량 확보, 홍수 조절, 수질 개선, 생태하천 복원, 친수공간 조성, 선진화한 수자원 관리 노하우 확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4대강 문화관이 단적인 예다. 지난 4월 29일 강천보 한강문화관 개관을 시작으로 백제보 금강문화관,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을숙도 낙동강문화관이 차례로 문을 열었다. 문화관 안에는 국내외 유명작가들의 작품 전시 공간과 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세미나·공연용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취임하신 후 K-water가 세련되어진 듯합니다

“세련돼졌다기보다는 어그레시브(공격적)해졌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K-water의 업무 범위가 굉장히 확장됐어요. 4대강살리기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수행하며 쌓은 노하우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게 그 예 중 하나입니다.”

지난 4일 K-water는 중국의 인촨(銀川)시와 ‘아이허강 수계정비 조성사업 공동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K-water의 중국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K-water는 지난해 1월부터 중국 장쑤(江蘇)성 쓰양(泗陽)현에서 상수도를 운영 관리하고 있다.

쓰양현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군 단위의 조그만 도시지만, 인구는 1백만명 정도다. 중국 회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진출했다. 우리 고유의 상수도 관리기술을 가지고 세계 최대 물 시장에 진출한 시범사업이다. 중국 물 시장은 세계 민영 물 시장의 38퍼센트 규모에 해당한다.

인촨시와 쓰양현 진출은 앞으로 K-water가 세계 시장에 눈을 돌리겠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외국으로 진출하는 하나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을 ‘블루골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재화지요. 그런 측면에서 물 산업은 거의 보장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이나 도로 등 다른 인프라와 또 다르게 국민생활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는 시장이에요. 국제 금융기관에서도 물 산업에 대한 투자는 안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해외에서도 물 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가 4대강살리기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관련한 기술을 배우려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군요. 그동안 4대강살리기 사업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을 집대성하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측면 모두에서 해외 수출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K-water는 4대강살리기 사업 등 여러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감회가 있다면.

“저는 4대강살리기 사업과 아라뱃길 사업이 국토를 재창조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완공까지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명품’ 문화유산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갖고 K-water 구성원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새롭게 변한 4대강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불신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4대강을 많이 찾아주십시오.” G

글·하주희 기자

WSJ "한국의 4대강 사업 잘 마무리됐다"

이탈리아 유력지는 최광식 장관 4대강 인터뷰 소개

지난해 10월 태국 수라퐁 외무부 장관 방한 시 동행한 'THAI TV컬러 CH3' 방송팀이 이포보를 방문해 취재하고 있다.

Intervista al ministro Choe Kwang-shik
«La cultura? Valorizza il marchio Paese»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도 5월 7일자 경제섹션에 최광식 장관 인터뷰와 함께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해외 언론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업 초기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고 '치수 사업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으면서 해외언론도 4대강살리기 사업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태국 수라퐁 외무부 장관 방한 시 'THAI TV컬러 CH3' 방송팀 4명이 이포보 등 4대강 현장 취재를 한 데 이어 11월 29일에는 아리랑TV 초청으로 〈포린폴리시〉(독일) 〈트리뷴〉(영국) 〈산케이신문〉(일본) 등 해외 10개국 10개 매체 언론인 10명이 여주 이포보를 방문해 관련 시설을 둘러봤다.

자카르타 포스트도 준설효과 등 인용

해외 언론의 방문은 보도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10월 24일 'Four Rivers Project is Done. Well, Nearly'라는 제목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이 사실상 잘 마무리됐다는 보도와 함께 4대강별 공정률을 자세히 밝히는 한편 여주 이포보 사진을 크게 게재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포스트〉 역시 지난해 12월 19일 'The Four River Restoration Project and Floods in Jakarta'라는 제목으로 자국의 북부 자카르타 개척 사업과 함께 한국의 새만금 간척 사업 효과와 4대강살리기 사업의 준설효과를 역설하는 내용을 실었다.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Corriere della Sera)〉도 5월 7일자 경제섹션을 통해 '문화? 국가브랜드를 향상시키다'라는 제목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에두와르도 세간티니(Edoardo Segantini) 경제섹션 편집장이 쓴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에는 최 장관과 나눴던 '4대강살리기 사업과 '국가 브랜드를 향상시킨 문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뤘다.

세간티니 편집장은 "최 장관은 '4대강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와 약속'이라고 말했다"고 밝히면서 "(4대강살리기 사업은) 한국의 가장 큰 대형 사업으로 (금강 사업의 경우) 반복적인 홍수로 인한 풍부한 역사적 유적지 훼손을 피하기 위해 금강의 하천부지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장관의 답변을 인용해 "한때는 농지 활용으로 하천부지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홍수재해를 예방했지만, 이제 개발모델이 바뀌어서 정부가 관련 지자체들에게 맡기고 하천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의미에서부터 공정률, 예산까지 자세히 덧붙였다.

이어 "최 장관은 '이제 관광시설을 갖추고 강변 개발과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 지출은 자연스럽게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G

글·박근희 기자

경주이니셔티브로 한국 교육위상 높였다

APEC 교육장관회의 끝나…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교육협력 프로젝트 추진

교육분야 최대 규모 장관급 회의인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가 경주에서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5월 23일 폐막했다. APEC 교육장관회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역내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관련 주요 사안을 협의하는 자리로 4년에 한 번씩 열린다.

아시아에서는 2000년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미래의 도전과 교육의 대응-글로벌 교육, 혁신 교육 및 교육협력의 강화'라는 주제 아래 역대 최초로 21개 APEC 회원국 교육장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세 차례의 본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그동안의 협력의지를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마지막 날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주선언문은 회원국들의 실천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협력을 위해 경주이니셔티브를 실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주선언문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나라가 APEC 회원국 간 교육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는 데 있다. 바로 교육협력 프로젝트(ECP·Educational Cooperation Project)를 추진하는 내용의 경주이니셔티브를 실행하기로 한 것이다.

회원국 교육장관, ICT활용 학교 견학도

교육협력 프로젝트는 우리나라가 모든 APEC 회원국의 교육협력 수요와 분야를 진단해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앞선 정보통신기술(ICT)이 회원국들에 높은 평가를 받아 채택될 수 있었던 프로젝트로, 다양한 우수 협력 사례와 성공 요인이 쌓이면 지속적인 교육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높이기 위해 우리의 정보통신기술 경험을 공유하겠다"며 "회원국 간 공동 연구와 정기 포럼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의제를 주도하게 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23일 APEC 회원국 교육장관과 대표단 1백여 명은 정보통신기술 우수 학교 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해 수업을 견학하기도 했다.

회의의 부대행사로 열린 미래교실테마관에서도 회원국 대표단은 디지털 교과서 등을 체험해 보며 우리나라가 제시하는 미래 교육의

경주에서 열린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는 경주선언문을 채택하여 교육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21개 회원국 대표단이 5월 23일 경북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참관하고 있다.

비전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더딘 아시아 국가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수출 기회가 열리게 됐다. 브루나이에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실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데 그쳤던 지난 회의와 달리 양자회담 등을 통해 국가별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 데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미국과의 양자회담에서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응책을 찾을 공동 연구를 하기로 합의했고 우수한 교사를 길러 낼 정부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중국, 일본과는 한·중·일 교육장관회의를 신설해 교육 교류를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러시아는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 모스크바 대학,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분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APEC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 고영종 부단장은 "이번 경주 APEC 교육장관회의는 교육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알리고 비전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며 "회원국 간 교육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적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G

글·김효정 기자

안녕하세요? 우리 미소가 보이시죠?

시각장애 인천혜광학교 학생들 다큐영화 〈안녕, 하세요〉 개봉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인천혜광학교 학생들의 일상을 담담한 시선으로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 하세요〉가 5월 24일 개봉됐다. 지난해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를 성공시켜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이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을 영화 개봉 당일 만나보았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려는 이들의 도전은 아직 진행 중이었다.

이광민 기자

지난해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연주회로 주목을 받았던 인천혜광학교 학생들. 이들의 일상을 담은 영화가 5월 24일 개봉되어 영상을 통한 새로운 감동을 주고 있다.

"표정이 궁금해요. 우리 영화만이 아니고 모든 영화를 볼 때 저 사람이 저 말을 할 때 표정이 어떤지, 표정 속에 담긴 감정이 궁금해요."

영화 개봉에 앞서 5월 21일 열린 시사회에서 영화를 '들은' 아이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분했다. 〈안녕, 하세요〉는 일반 상영본 외에 장애인의 관람을 위해 음성해설과 자막을 넣은 '배리어 프리'(barrier-free) 버전으로도 상영된다. 음성해설은 탤런트 신애라가 재능기부로 참가했다.

임태형 감독과 촬영팀이 8개월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기록한 영상에는 학생(전교생 1백50명), 교직원(70명)의 거의 대부분이 담겼지만, 러닝타임 91분으로 잘라낸 최종 편집본에는 10명 정도만 주요인물로 등장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실망하기보다 영화에 나온 친구의 모습에 만족했다.

"지혜가 주사 안 맞는다고 난리 치다가 선생님께 혼나는 장면이 재미있었어요."(문다솔·고2)

"저도 지혜가 수업하다 말고 베개 베고 자는 게 웃겼어요."(박지은·고2)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었으면

영화가 관객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기대 반 걱정 반인 사람들도 있다. 서울대 음대 트롬본 전공 진학을 준비 중인 원희승(고3) 군은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그렸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장애를 극복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생각해요. 다만, 또래 아이들 모습일뿐 단지 시각장애인이어서 그렇다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학교 홍보부장인 이석주 교감은 "실제 학교 활동이 많이 다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우리 아이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영화평을 대신했다.

이 학교 음악교사인 황수진(30) 선생님은 아이들 재능이 놀랍다고 설명했다. 일반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이곳에 온 황 선생님은 첫 음악수업 때, 일반학교 한 교시 분량을 준비했다가 낭패를 봤다. 아이들이 곡을 금새 외워 10분 만에 수업이 끝났기 때문이었다.

이광민 기자 / TeddyWorks

인천혜광학교 학생들의 일상은 영화(오른쪽·영화 스틸사진)에서도, 실생활에서도 여느 청소년들과 다름없다.

지난해 3월 전교생과 교직원, 졸업생을 아우르는 오케스트라를 편성한 것도 몇 년 전부터 취미로 악기를 시작한 것이 발단이었다. 아이들이 열정을 보이면서 2008년 중고등부 관악부를 결성했고, 현악부와 타악기부가 속속 신설되면서 자연히 오케스트라를 갖추게 됐다. 처음에는 오케스트라를 만든다는 학교 측 이야기에 학부모들이 반신반의했지만, 아이들의 숨겨졌던 재능에 점차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황 선생님은 "아이들이 '좋은 귀'를 가졌다"며 "소리가 나는 높이에 따라 상대방의 키를 알고, 목소리 톤으로 상대방의 체형을 아는가 하면, 발걸음 소리만으로 누군지 알아맞힌다. 절대음감인 아이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전문 연주자인 강사의 연주를 듣고 음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앞은 잘 못 보지만 절대음감으로 음악 접해

음악교육은 아이들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시각장애인은 취직에 성공하고 나서도 직장동료와 의사소통이 어려워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시각장애인이 악기를 배우면 직장 내 연주회나 음악 관련 동호회에 참가할 수 있고, 악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동료들에게 악기 지도를 해주며 소속감과 자존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곳에서는 시력이 전혀 없는 전맹(全盲) 아이와 저시력 아이가 짝을 지어 다닌다. 그래서 왕따가 없다고 한다. 지난해 일반학교에서 전학 온 공혜원(중3) 양은 "이전 학교에서는 저시력 때문에 위축돼 지냈는데, 이곳에서는 시력이 전혀 없는 학생들에게 내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3층짜리, 5층짜리 건물 2개 동에 22개 교실이 들어선 이 학교에는 계단 대신 경사로가 있고, 복도 양측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학교 어디에도 문턱은 없었다. 일반 학교에 비해 선생님이 많다는 것을 빼면 여느 학교와 별 차이가 없었다.

인천혜광학교 교사의 30퍼센트는 이 학교 졸업생이라고 한다. 학교 사진동아리를 지도하는 이상봉 선생님은 자신도 척추측만증이란 또 다른 장애를 갖고 있어 아이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깊었다고 한다.

사회에 나가서도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가길 바라

"장애인으로 살 때 늘 위축이 됩니다. 저도 심리적으로 장애를 극복하고서 비로소 사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수업은 1교시 독서로 시작해 고등과정은 월~금 11교시까지 수업을 듣는다. 고등과정을 마치면 전문대에 해당하는 전공과정에 진학할 수도 있다. 교과목은 국·영·수 같은 일반과정 외에 국토순례, 고적답사, 스키캠프, 1인 1악기 연주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특징이다. 여기에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안마, 침구 같은 과목이 추가된다.

인천혜광학교는 사회복지법인 광명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다. 1961년 경기맹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1982년 인천혜광학교로 교명을 바꿨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명선목 교장은 "특수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맹(盲)자를 뺐다"고 설명했다.

"우리 학교의 최종 목적은 일자리입니다. 장애인도 자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 중에는 대학 교육까지 마치고서도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이 적어도 1개 이상 악기연주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사회와 소통하고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G

글·남창희 객원기자

세금 떼먹고 호화생활?… 어림없다!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족 두 달 동안 체납세금 4천억원 징수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은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남김없이 거둬들인다. 지난 2월 28일 고액 체납자를 집중·특별 관리하려 발족한 이후 4천억원 가까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재산을 숨겨 호화롭게 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 신종 수법을 사용하는 체납자 등을 끈질기게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무한추적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지난 4월 서울 중구 서울지방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사무실에 A씨가 들이닥쳤다. 가까이 여직원이 있는 책상으로 다가가 대뜸 품속에서 날카롭게 벼린 흉기를 꺼내들어 보였다.

"이걸로 급소를 그으면 평생 손을 못 쓰고 살아. 알아?"

"딸 있어? 아들 있어? 가만히만 있으면 우리는 당신 안 건드려."

금방이라도 흉기를 휘두를 것 같은 A씨의 협박이 계속됐다. A씨는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수억 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에 의해 고액 체납자로 분류된 사람이었다.

무한추적팀의 유세영 팀장은 "보통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 처분해 체납된 세금을 처리하지만 이 남성은 8년 넘게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약속해 처분을 미뤄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예금이나 신용카드 매출 채권 등으로 조금씩이나마 체납된 세금을 내고 있기는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국세청에 고액 체납자를 특별 관리하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신설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주주명단 등 수사관같이 끈질긴 추적조사

유 팀장은 "A씨는 예전처럼 '다음에 납부하겠다'고만 하면 공매가 취소될 거라 생각했던 것 같다"며 "뒤늦게 부동산이 공매 처분되고 미뤄온 세금을 전부 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사무실로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원들이 나서 A씨에게 사무실 내부가 녹음·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설득한 끝에 소동이 마무리됐다. 유 팀장은 "체납 금액이 크다 보니 막무가내로 협박하는 체납자들이 있어 위험에 처할 때도 있다"고 했다.

반면 수사관을 방불케 하는 추적 조사를 벌이기도 한다. 무한추적팀은 수백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전 대기업 사주 B씨의 차명주식을 찾아내 세금을 징수했다. B씨가 가진 재산이 거의 없는데 수시로 외국을 드나드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덕분이었다. B씨가 사주로 있었던 법인의 주주명단과 B씨가 드나들었던 국가 명단을 일일이 검토했다. 그러다 B씨가 외국에 차려진 유령회사 명의로 국내 법인의 주식 1천억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즉시 압류해 체납된 세금 1백63억원을 거둬들였다.

2월 28일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에서 직원들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있다. 무한추적팀은 발족 두 달 만에 4천억원에 가까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수천억 원 세금을 체납한 전 대기업 사주 C씨에게서 재산 8백7억원을 확보한 일도 대표적인 성과다. 무한추적팀은 C씨가 서울시에 내놨던 땅을 다시 사들이려 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압류했다. 그리고 C씨의 재산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30년간 등기하지 않은 시가 1백80억원 상당의 토지를 발견했다. 국세청은 즉시 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외국을 떠돌며 재기를 노리던 중이었다.

이렇게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지난 4월 말까지 거둬들인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 세금은 3천9백38억원이다. 2월 28일,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피하는 고액 체납자를 특별 관리하려 팀을 발족하고 두 달 만이다.

5천만원 이상 고의체납 혐의자가 추적 대상

2011년 한 해에만 2년 넘게 7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진 고액 체납자는 1천3백13명에 달한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3조2천7백74억원이나 되지만 납부액은 겨우 4백51억원이다. 지금까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관할 세무서에서 관장해 왔다. 그러나 고액 체납자들을 특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국세청이 특별 관리팀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국세청 징세과 양병수 과장은 "무엇보다 고액 체납자들이 세금을 체납하는 방식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생계가 어려워서, 사업에 실패해서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들보다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자산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된 2007년에는 해당 체납자가 6백61명이었지만 2011년에는 1천3백13명으로 5년 사이에 50퍼센트 늘어났다.

양병수 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은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징수하기 어렵게 하면서 호화 생활을 누린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고액 체납자들 때문에 일반 국민이 나눠야 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 관리팀을 꾸리게 됐다"고 밝혔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인원은 전국적으로 1백92명이다. 6개월 넘게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체납자 중에서도 고의적으로 체납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추적·조사한다. 소득이 없는데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자택에 거주하고 소비생활을 누리는 경우, 해외 출입이 빈번한 경우, 변칙 증여나 상속을 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무한추적팀은 추적 대상이 정해지면 우선 자금 흐름을 추적한다. 금융 조회와 부동산 분석은 기본이다. 재산을 숨겨준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와 재산 수색에 가족의 출입국 현황까지 파악한다.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소송 요원, 전담 변호사도 딸려 있다.

"고액체납자가 없어질 때까지 무한추적"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고액 체납자들은 사무실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린 A씨처럼 무한추적팀을 협박하기도 한다. 현장에서 격렬한 저항에 맞닥뜨릴 때도 있어 팀원들은 항상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편이다. 유세영 팀장은 "체납자에게 상담 내용이 녹음·녹화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고발 조처를 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해가 갈수록 외국으로 재산을 빼돌려 탈세·체납하는 체납자들이 늘어나는데 해당 국가의 협조를 얻기도 쉽지 않다. 한명의 고액 체납자를 추적하려 수천 장의 서류를 검토할 때도 있으니 인원과 자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양병수 과장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은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중요한 일"이라며 "모두 징수할 때까지 끈질기게 추적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G 글·김효정 기자

공무원 되는 길… "친절히 알려드려요"

서울에 이어 5월 31일 광주, 6월 1~2일 부산에서 열려

공무원을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공직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공무원이 되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하고, 공무원이 된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알 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서울에 이어 광주, 부산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지난 5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2 공직박람회'가 개막했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 광주, 부산 등 3개 도시에서 연이어 개최된다. 서울에서는 26일까지 열렸고, 31일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부산에서는 다음 달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시청 로비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공직과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공직 채용 정보를 한자리에서 알 수 있도록 하고자 열렸다. 35개 중앙행정기관과 2개 헌법기관, 16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54개 기관이 참여했다.

박람회는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직접 해당 부처의 업무 담당자들에게 채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직채용안내' 섹션, 필기·면접시험 등 공무원 시험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맞춤형 채용 서비스' 섹션, 그리고 공무원의 종류 및 업무 분야, 인사제도, 후생복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직에 대한 이해' 섹션이다.

이번 박람회는 특히 고등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다. 학교에서 단체로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 9급 공무원 채용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는 9급 일반행정직 채용을 위한 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입법예고했다.

9급 공무원 지망 고교생들 단체방문 많아

고졸자의 공무원 임용 기회가 실질적으로 넓어진 셈이다. 새로 추가된 사회, 과학, 수학 등의 과목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 이번 박람회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 고교생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따로 마련된 '고졸채용관' 부스에서는 9급 수습직원 선발, 기능 인재 추천채용제 등 고졸자 대상 채용시험 정보를 알려주고, 9급 공채시험 준비 방법을 안내한다.

뉴시스

5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2 공직박람회'의 경찰청 부스에서 학생들이 전시된 경찰 오토바이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2012 공직박람회에는 9급 공무원 채용시 고졸 출신 확대 방침 등이 알려져 고교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기관별 부스에는 실질적인 인사 담당자가 나와 있다.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채용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해준다. 기관별 부스 중에서 인기가 많은 부스는 단연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부스다. 경찰청 부스에는 가상 사격대가 설치돼 있다. 두 명이 차례로 쏜 다음 점수를 비교해 볼 수 있어 고등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소방방재청 부스에서는 소방관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체력 테스트와 응급환자를 위한 심폐소생술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서울 도봉구 문화고등학교 3학년 허재영 양은 "대학을 가지 않고 9급 공채 회계 직렬에 지망할 예정"이라며 "공직박람회에 처음 와 봤는데 정보뿐 아니라 볼거리가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1대1 멘토링 · 공직적성검사 인기 높아

'일대일 멘토링' 부스도 인기가 많다. 수험생들이 평소 만나기 어려운 현직 공무원과 직접 상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 준비 방법이나 공무원이 되고 나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 등을 물을 수 있다. 5급·7급·9급 공채, 경력자 채용 등 채용 방법별로 맞춤형 조언을 들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7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정애(23)씨는 "경기도청 직원으로부터 공무원 생활에 대한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공무원분들이 친근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참 좋았다"고 했다.

멘토링 외에 '공직적성검사'도 받아볼 수 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자신이 어울리는지 확인해 보는 검사다. 검사 후에는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다. 검사 프로그램을 개발한 호서대 산업심리학과 김명소 교수팀이 20여 분 동안 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

'예제풀이' 시간도 있다. 5급 공채의 1차 시험인 PSAT(공직적격성평가)와 국립외교원 선발시험, 9급 공채 개편과목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다. 국립외교원 선발 시험은 내년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터라 수험생들의 관심이 뜨겁다. 사전예약과 현장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데 경쟁률이 높다.

고등학교 교과목이 추가되어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9급 공채 개편과목 예제풀이도 마찬가지로 인기가 높다. 공직적성검사와 예제풀이 모두 예약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한번에 1백50명이 참가하는데 이 중 1백명은 온라인을 통한 사전예약을 통해 받고, 50명은 현장에서 예약을 받는다.

'모의면접 체험관'도 있다. 실제 공무원시험 면접과 비슷한 환경에서 모의면접을 진행한다. 면접을 마치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서울 노량진에서 7급 공채를 준비하는 김일지(23)씨는 "몰랐던 정보를 많이 알게 돼서 좋았다"며 "노량진 학원가에서 간접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공무원 채용 담당자를 만나 정확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했다.

박람회 현장에서 채용 응시 원서를 접수하는 기관도 있다. 서울에서는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와 기관이 접수를 했다. 부산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 부산지방검찰청이 경력직 채용 원서를 접수한다. G

글 · 하주희 기자

문의 www.gojobs.go.kr

공직박람회 일정

광주 5.31(목), 김대중컨벤션센터 제3전시장

부산 6.1(금)~2, 부산시청 1, 2층 로비

공직적성검사 및 예제풀이 시간표

지역	날짜	시간	내용
광주	5월 31일(목)	11:00~11:50	취업클리닉 특강
		13:00~13:50	일반직&민간경력자 채용설명회
		14:00~14:50	특별강연
		15:00~15:30	취업클리닉 특강(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5:40~16:20	경찰&소방 공무원 채용설명회
		16:30~17:00	취업클리닉 특강(면접화술)
		17:10~17:50	교사&군인 채용설명회
부산	6월 1일(금) ~6월 2일(토)	11:00~11:50	취업클리닉 특강
		13:00~13:50	일반직&민간경력자 채용설명회
		14:00~14:50	특별강연
		15:00~15:30	취업클리닉 특강(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5:40~16:20	경찰&소방 공무원 채용설명회
		16:30~17:00	취업클리닉 특강(면접화술)
		17:10~17:50	교사&군인 채용설명회

젊은 피는 뜨겁다… 대학축제에 '나눔' 확산

숙명여대 등 29개 대학, 5월 캠퍼스에서 '나눔축제' 열어

상업화됐다는 비판을 받던 대학 축제가 변하고 있다. 5월의 캠퍼스 곳곳에 나부끼는 단어는 '나눔'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29개 대학이 함께 하는 '2012 캠퍼스 나눔도전'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나눔 축제'가 열리고 있다. 2천원 기부 모아 어린이들에게 운동화 나눠주겠다는 숙명여대 학생들, 아예 축제 이름을 '기부 & Give festival'로 한 건양대학교 학생들을 만나보았다.

"2천원에 사랑을 실천하세요!" "선배님, 다트 돌리고 아이들 도와주는 건 어때요?"

한여름만큼 무더운 5월 23일 점심시간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제1캠퍼스, '숙명지식봉사단' 진수련(경영학과 1학년)씨의 목소리가 지나가던 발길을 붙잡았다. "아이들을 위해 2천원을 기부하고 다트를 돌려 나오는 상품을 받아 가면 돼요." 문해수(미디어학부 2학년)씨의 설명에 박규민(가족자원경영학과 1학년)씨가 지갑을 열었다. 모금함에 2천원을 넣고 다트를 돌려 받은 상품은 학교 앞 카페 '쎄라비'의 무료 음료 쿠폰이었다.

2천원씩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에 전달

박규민씨는 "그냥 2천원 기부하라고 해도 좋은데 상품까지 주니 즐겁다"며 "대학 축제에는 주점이나 클럽이 많을 것 같다는 편견을 깨고 나눔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동안 비싼 출연료를 내며 연예인을 초청하거나 음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대학 축제 모습이 변하고 있다. 요즘 대학 축제의 트렌드는 '나눔'이다. 숙명지식봉사단 학생 95명이 참가한 행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국 29개 대학이 함께 진행하는 '2012 캠퍼스 나눔 도전'의 일환으로 열린 것이다.

건양대학교홍보팀

올해 건양대학교 축제는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채워졌다. 건양대 학생들이 지역 독거노인의 집을 수리하고 있다.

올해로 5회째 맞는 '캠퍼스 나눔 도전'은 대학생들의 나눔 의식을 고취시키고, 대학 축제의 판을 빌려 직접 나눔을 실천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기부금을 모으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적절한 기부처를 연결해 준다. 2008년 1회에는 5개 대학이 참가했지만 올해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숙명여대 등 전국 29개 대학이 참가하며 규모가 커졌다.

숙명지식봉사단은 2008년 1회 행사부터 참여해 왔다. 봉사단은 평소에 용산구 내 동사무소와 사회복지단체 7곳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육봉사 활동을 한다. 지난해에는 모은 성금으로 아이들에게 운동화를 선물했다. 예년에 비해 신입회원이 늘어난 올해, 축제를 준비하면서 봉사단원들은 축제 기간만에라도 대학 모든 학생이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랐다.

봉사단 총무 윤소연(통계학과 2학년)씨는 "참여율을 높이려 경품을 주는 게임도 마련했다"며 "2주 전부터 학교 앞 카페와 음식점을 돌아다니며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탐탁지 않아 하던 가게 주인들도 행사의 취지를 듣고 기꺼이 동참했다. 무료 음료 쿠폰 수십 장을 기부한 카페 '쎄라비'의 점장 조준형(37)씨는 "더운 날에 땀 흘리며 돌아다니는 학생들의 마음이 예뻐 보였다"며 "누군가는 무심코 사용할 무료 쿠폰이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건양대는 축제 자체를 기부행사로

사람들의 반응도 뜨겁다.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2천원을 기부하고 '사랑의 열매' 브로치를 받아 간 한양여대 변유진(정보경영학과 1학년)씨는 "축제라고 하면 먹고 마시는 것을 떠올리기 쉬운데 아이스크림 하나 살 돈으로 좋은 일을 하니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는 것 같다"며 웃었다.

학교 부근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 윤경선(46)씨도 "축제가 열린다기에 구경 왔다가 사랑의 열매가 눈에 띄어 왔다"며 기꺼이 2천원을 내고서 "앞으로는 이런 부스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대학 축제에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5월 23일 숙명여대 제1캠퍼스에서 '2012 캠퍼스 나눔 도전'에 참여한 숙명지식봉사단 학생들이 기부금을 모으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진행하는 행사에서 거둔 기부금은 전액 지역 어린이들에게 쓰일 예정이다.

아예 축제 자체를 나눔 활동으로 채우는 학교도 있다. 5월 한 달, 충남 논산시 곳곳에는 건양대학교 축제에 참여하라는 현수막이 나부꼈다. 지역 주민들도 함께하는 바자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열린 건양대학교 축제 '기부 & Give festival'은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채워졌다. 23일과 24일 양일간 오전에 열린 바자회에는 학생뿐 아니라 지역주민들까지 찾아와 성황을 이뤘는데 여기서 모인 수익금으로 지역 어린이를 위한 책을 샀다. 학생들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서기도 했다.

24일 오전에는 지역 내 독거노인의 집을 수리하거나 보육원의 낡은 담벼락을 바로 세우고 벽화를 그리며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활동에 참가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라면 한두 봉지씩 기증했고 총학생회는 이를 모아 대한적십자사에 전하기로 했다.

건양대학교 축제는 3년 전부터 주점 없는 축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로 열려 왔다. 그러나 축제 기간 내내 나눔 활동을 펼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진짜 축제'를 만들어 보자는 학생들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총학생회장 김형수(기계공학과 4학년)씨는 "축제를 흥겹게 보내기 위해 반드시 술이나 음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학과 특성을 살린 부스를 만들어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해 대학의 발전까지 도모하고 싶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학생들은 운동처방학과 학생들이 마련한 상담 부스에서 비만도를 측정하고, 안경광학과에서 차린 시력측정 코너에 가서 시력을 재보기도 했다. 술이 없는 축제를 아쉬워할 만도 하지만 학생들의 만족도는 더 높았다.

저소득층 주민 초청 콘서트 가진 대학도

고려대 총학생회는 올해 축제 기간 중 주점과 부스에서 거둔 수익금 모두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인하대 언어교육원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은 각국의 전통 음식을 만들어 팔고 남은 돈으로 투병 중인 학우를 돕는다. 저소득층 주민들을 초청해 콘서트를 여는 경희대나 전교생이 헌혈에 참가한 대구보건대 등 여러 학교에서 새로운 축제 모습을 선보이는 중이다.

이런 경향에 대해 '2012 캠퍼스 나눔 도전'을 이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김효진씨는 "요즘 대학생들은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의미를 찾으려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이웃을 도우며 마음의 여유를 찾는 동시에 색다른 경험을 쌓아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나눔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다"(김하림·숙명지식봉사단 기관장)고 입을 모은다.

글·김효정 기자

김영순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생산본부장(뒷줄 가운데)은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한 공로로 철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생산직 직원의 30퍼센트 이상이 장애인이다. 김 본부장은 장애인 직원은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란 생각은 편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철탑산업훈장 받은 캐논코리아 김영순 생산·개발본부장

"장애인 고용은 회사 발전의 블루오션"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은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 직원의 10.73퍼센트가 장애인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에 대한 공로로 철탑산업훈장도 받았다. 장애인 고용에 앞장선 김영순 생산본부장이 그 주인공이다. 김 본부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모든 기업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이하 캐논코리아)의 공장에는 두 종류의 유니폼이 있다. 왼쪽 어깨에 수화로 '사랑합니다'를 의미하는 표식이 붙어 있는 옷과 그렇지 않은 옷이 그것이다. 표식이 붙은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의 생산 라인이 구분돼 있는 점이 흥미를 자극한다. 이곳에 최근 생긴 캐논코리아의 비밀이 있다. 김영순 생산본부장의 설명이다.

"표식이 있는 유니폼을 입은 쪽은 청각장애인 직원들입니다. 겉으로는 구분이 안 돼서 유니폼으로 표시를 했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잖습니까."

캐논코리아는 국내에서 장애인 고용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직원의 10퍼센트 이상이 장애인이다. 생산직만 따지면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한다.

일반인 직원보다 높은 생산성 올려

하지만 3년 전만 해도 사정이 지금과 완전히 달랐다. 대개의 기업처럼 장애인의무고용할당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고용부담금)을 물고 있었다. 대변화는 2009년 7월에 시작됐다.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것이 변화의 기폭제가 됐다. 당시 협약 소식을 접한 김 본부장은 "고용이 많은 생산현장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무적인 고민에 들어갔다. 오래된 공장이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이다. 계단을 고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고용하려면 적잖은 비용이 필요했다. 고민을 시작한 지 며칠 후 김 본부장은 그야말로 벼락처럼 답을 얻었다.

"청각장애인이라면 공장을 고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군요. 반월공단에도 한국말이 서툰 동남아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라 생각하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고용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장애인고용공단 등 관련기관의 지원 시스템이 기대 이상이었다. 면접을 마친 후 채용예정자를 위한 직업훈련도 맡아 처리해 줬다. 장애인 직원들은 빠르게 현장에 적응했다. 3개월 만에 일반인 직원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다.

"무조건 정사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야 적응이 빠를 것이라 생각했죠. 장애인 직원이라고 차별할 생각도 특혜를 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똑같은 일과 대우를 제공하고 똑같은 생산성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장애인 직원들의 생산성은 일반인 직원보다 높습니다."

일본 캐논도 '제2의 생산혁신'으로 평가

장애인 직원들의 높은 생산성은 캐논코리아의 혁신적인 작업 시스템과 연관이 깊다. '셀(cell)방식'이라고 불리는 캐논코리아의 생산 라인은 여느 현장과 달리 컨베이어벨트가 없다. 각자의 속도에 따라 작업을 하고 속도가 느리면 동료가 도와줄 수도 있다. 셀은 이런 생산 단위 조직으로 생산량과 모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하나의 셀은 다른 셀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장애인 직원들만으로 별도의 셀을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편견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12명이 필요한 셀이었는데 생산성이 떨어질 거라 생각해 16명을 채용했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 생산성이 조금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4명이 남게 돼 8명을 추가로 채용해 2번째 셀을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장애인 직원이 늘어 현재 6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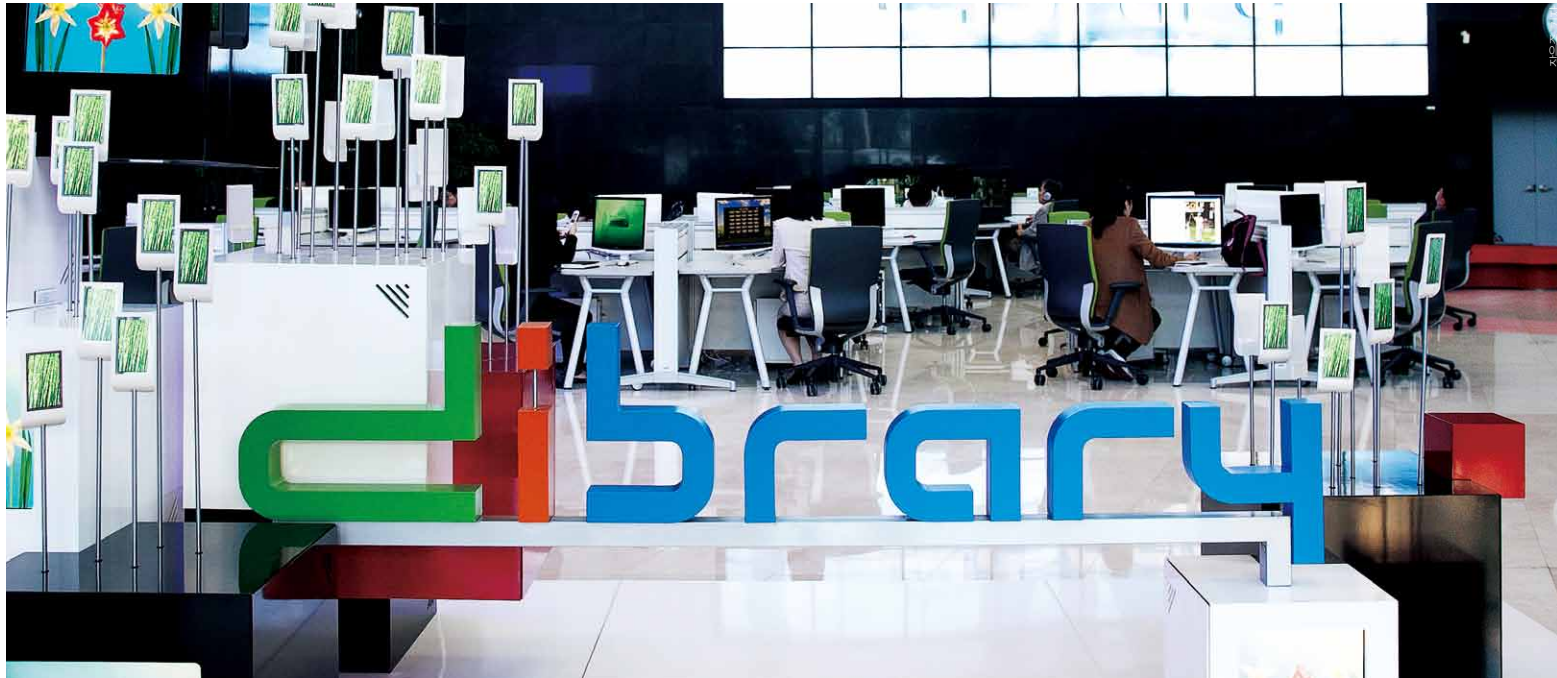
장애인 직원들의 집중력은 남달랐다. 듣지 못하는 대신 손재주가 탁월했다. 매월 평가되는 '셀 콘테스트(셀 단위의 생산성 평가대회)'에서 장애인 셀이 우승을 차지하는 일이 잦아졌다. 지난해에는 최고의 숙련기능공에게 부여하는 '슈퍼마이스타'에 2명의 장애인 직원이 선발됐다. 일반인 직원도 3년 이상 일해야 겨우 획득한다는 '훈장'이다.

> **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
>
> **고등교육 기회 확대로 취업역량 높인다**
>
> 장애인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인원은 13만3천여 명으로 2007년보다 49.4퍼센트 늘어났다.
>
> 장애인 고용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었다. 의무고용 사업체의 절반가량이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다. 직원 1천명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은 1.78퍼센트로 전체 고용률인 2.28퍼센트를 밑돌았다.
>
> 정부는 저조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 '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일하고 싶고 고용하고 싶은 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기초수급 제도를 개선해 기초수급 탈피를 촉진할 계획이다. 취업성공패키지나 희망리본 등에 참여해 기초수급자에서 탈피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의료교육 급여 유예를 근로·사업소득으로 인해 탈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환경(BF)'도 조성한다. 공공발주 신축, 증·개축 공사의 경우 BF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하고 민간 시설물의 경우에도 BF인증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
> 장애인의 취업역량도 높인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연계한다. 특성화고와 폴리텍대학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과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맞춤형 창업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
> 장애인고용공단에 '워크 투게더 센터'를 설치해 고용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학교교육과 복지일자리를 연계해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하도록 지원한다. 16개 시·도교육청에는 '커리어 점프 희망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과 고용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
>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에는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금을 차등 부과한다. 고용률이 낮을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부과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캐논코리아의 장애인 고용은 모범적인 혁신 사례로 평가받는다. 국내외 기업의 견학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캐논에서는 이를 '제2의 생산혁신'이라 부를 정도로 높이 평가한다.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회사 발전을 위한 블루오션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직원은 회사 이미지를 높이는 견인차 역할도 합니다. 견학 왔다가 장애인 고용에 감동받고 사무기기를 모두 캐논 제품으로 바꾸는 분도 있어요. 국내에만 25만명의 청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엄청난 생산성을 발휘할 인력들입니다. 모든 기업과 경영자들이 캐논코리아가 누리는 행복을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G

글·변형주 (이코노미플러스 기자)

정은주 기자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지 경제섹션에 대대적으로 소개된 서울의 국립중앙도서관(왼쪽 사진). 기고자 에두와르도 세간티니 편집장은 특히 이용자가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디브러리 내 '크리에이티브 존'(오른쪽 사진)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L'utopia (riuscita) della biblioteca digitale

> "이곳(국립중앙도서관 디브러리)은 2009년 설립된 한국 전자도서관으로서 일반적인 도서관 구조가 아니다. 이곳의 특성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 다른 어떤 도서관들과는 차이가 있어 미래지향적 건축물에 (도서뿐만 아니라) 미디어 디지털을 접목하면서 가상성(Virtuality)의 물리적 기지를 마련했다. (중략) 가장 놀라운 것은 '크리에이티브 존'이라는 곳이다. 이 방은 적어도 3일 전에 예약해야 된다. 이용자들은 Digital editing을 위한 완벽한 장비를 마주하게 된다.
> 다시 말하면, 만약 능력이 된다면 스스로 신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왜 (이탈리아는) '한국의 디지털 모델을 참고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
> 5월 12일자 〈코리에레 델라 세라〉지 46면

"한국의 전자도서관은 성공한 유토피아"

이탈리아 최대 신문 〈코리에레 델라 세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도서관 극찬

이탈리아 최대 전국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지 경제섹션 편집장 에두와르도 세간티니가 한국의 전자도서관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기사를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게재했다. 유럽 유력 언론에서 한국의 전자도서관에 대해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면을 할애해 소개한 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다.

지난 5월 12일자 〈코리에레 델라 세라〉(Corriere della Sera)지에는 한국의 전자도서관과 도서 산업 정책에 대한 기사가 전면에 걸쳐 게재됐다.

에두와르도 세간티니 편집장

'전자도서관의 성공한 유토피아' '보존만이 아니다. 산업 정책을 말하다'라는 제목의 2건의 기사였다.

2013년 한·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지난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던 〈코리에레 델라 세라〉지 경제섹션 편집장인 에두와르도 세간티니(Edoardo Segantini)는 경제면 전면을 할애해 '한국은 전자도서관의 성공한 유토피아'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기고를 통해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은) 미래지향적 건축물에 디지털 기술(국립중앙도서관 내 디지털도서관 디브러리)을 접목함으로써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이나 전 세계 어떤 도서관들과도 차별화된 독보적 '가상기지'를 구현해 냈다"고 극찬했다.

"미래지향적 건축물에 디지털 기술 접목"

아울러 '2004년 최고의 시설의 도서관 개설을 계획했지만, 재정지원을 얻지 못해 문서로만 남게 된' 자국의 도서관 정책을 언급하며 "이탈리아 정부도 한국의 디지털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간티니 편집장은 무엇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인 디브러리 내 '크리에이티브 존'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디브러리는 digital과 library를 조합한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 디지털도서관이다. 전자책 검색이나 원문 보기 서비스뿐 아니라 세미나실과 영상스튜디오 등을 갖춰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도서관, 그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다.

세간티니 편집장은 디브러리에서 이용자들 스스로가 신문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히 놀라워했다. "전자도서관의 위치를 기존 일반 도서관과 가까운 곳에 두어 디지털 세계와 인쇄의 세계가 공존하도록 한 것만으로도 매우 높은 상징적 가치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탈리아 도서관협회의 스테파노 파리세 관장의 말을 인용해 "디지털 세계와 인쇄 세계가 꼭 대조적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국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설정에서부터 하나의 아방가르드적 경험"이라고 소개했다.

나아가 "디브러리는 한국의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창조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독창성과 진취성, 한류를 기반으로 중국과 일본을 추월해 2020년까지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한국의 야망을 대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인들은 그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전쟁, 분단, 공산주의의 위협, 가난 등으로부터 벗어났으며 그 정신력을 토대로 지금은 IT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록을 달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탈리아는 한국의 발전에 주목해야 한다"

〈코리에레 델라 세라〉지는 이탈리아어로 '저녁통신'이라는 뜻으로 약 56면 규모의 이탈리아 전역에 발행되는 최대 일간지다. 외신보도와 신문편집의 독립성으로 정평이 나 있고 이탈리아 신문 중 사설이 가장 뛰어나며, 국제정치·경제문제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세간티니 편집장은 이와 함께 4대강, 삼성 등에 대한 기사도 〈코리에레 델라 세라〉에 비중 있게 소개하면서 "이탈리아는 한국의 발전에 주목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 원수빈 전문위원은 "유럽 유력 언론에서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IT산업, 문화에 대해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면을 할애해 소개한 것은 드문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가의 브랜드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글·박근희 기자

감동없는 140자에 갇힌 '소셜 네트워크 시대'

창작자는 여전히 아날로그적 고통 필요

긴 글은 환영하지 않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정보는 1백40자에 갇혀 유통된다. 호흡이 긴 글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가벼운 흥미 위주의 글에 묻혀 금방 뒤로 밀려 버린다.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만들어 남들에게 보일 수 있는 환경은 창작자들에게 오히려 더 험난한 과정을 요구한다. 소셜 시대에 창작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유행했다. 자신을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플랫폼이 끊임없이 개발되었다. 블로그도 한때는 새로운 인터넷 창작 문화의 중심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홈페이지의 변형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의욕에 차서 홈페이지를 만들곤 했지만 막상 그곳을 채울 자신만의 콘텐츠가 없었다.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 수 없었던 사람들은 결국 남의 것을 퍼 와서 블로그를 꾸밀 수밖에 없었다. 반짝이는 것이면 무엇이든 물어 와 둥지를 치장하는 조류와 같은 처지에 빠진 것이다.

퍼 온 글은 그저 쓸모없이 반짝이는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했다. 아무도 퍼 온 자료를 보고 좋아하지 않았고 다시 방문해 주지도 않았다. 블로그 홍보가 가능한 메타 블로그의 첫 페이지를 차지할 수 있었던 몇몇 인기 블로그를 제외한 대다수는 실망과 좌절 속에 방치된 채 결국 버려지고 말았다.

도메인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난 개인 도메인과 인터넷 임대 사업으로 수입을 얻으려던 홈페이지 업체들이 있었다. 그 후 이들의 인기가 시들자 무료 홈페이지로 사용자를 끌어모아서 광고로 돈을 벌려는 인터넷 벤처들이 나타났다. 마케팅의 천재들은 블로그뿐만 아니라 웹 2.0을 기치로 내걸고 소셜웹과 SNS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다.

디지털 세상의 승자는 언제나 플랫폼 업자

시장에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혹시 다를지 모른다며 유행에 휩쓸렸지만 언제나 결과는 같았다. 언제나 승자는 플랫폼 업자들이었다. 독립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초기 비용을 뜯기거나 무료라는 말에 속아서 아까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며 그들의 플랫폼에 데이터를 채워 주는 가련한 개미들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런 마케팅 전략은 점차 진화하여 동영상과 음악, 그림, 만화에까지 영역을 넓혔다. UCC라는 또 다른 유행은 기타 연주 하나만 잘해도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 후 수많은 기타리스트들이 꿈에 부풀어 자신의 기타 연주를 UCC사이트에 올렸으나 운 좋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들을 기억해 주지 않았다.

사용자의 실망이 커지는 만큼 플랫폼 업체의 상술도 고도화되었다. 약속은 더욱더 달콤해졌고 인터페이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편해졌다. 이제 더 이상 도메인 관리나 웹 페이지 관리 따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클라우드를 통해 안전성을 보증하므로 데이터 백업도 필요 없다. 기술의 발달은 사용자들에게 완벽한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회원가입만 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마이크로 블로그, 즉 소셜 네트워크가 탄생했다.

SNS는 가장 허망한 콘텐츠 플랫폼에 불과

플랫폼 운영자들은 어차피 보통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거나 그림으로 만들지도 못한다. 음악이나 영상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기발한 아이디어도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어 낼 능력도 시간도 없다.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일부 창작자의 창조물을 서로 돌려보며 즐기고, 기껏해야 그런 창조물이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리트윗할 뿐이다.

그리하여 마이크로 블로그 창조자들은 현실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배제한 건조한 인적 네트워크만 남겼다. 이상적인 피라미드 판매 방식처럼 등록만 해 놓으면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내가 한마디 한 것을 읽고 전파해 준다. 전세계인이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SNS는 소통의 혁명이라 아니할 수 없다.

SNS에서는 더 이상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장문의 글로 자신을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 아예 일정 글자 수 이상은 쓰지도 못한다. 문장력도 필요 없고 생각의 깊이도 요구하지 않는다. 어렵거나 전문적인 내용들은 오히려 외면당할 뿐이다. 미사여구는 버려지고 문학적 표현은 허세로 취급받는다. 언어는 축약되고 내 생각은 링크로 표현된다.

더 이상 사람들은 책도, 그림 없는 게시 글도, 두 번 이상 스크롤해야 되는 웹 페이지도 읽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짧은 문장으로 서로 '지저귀는' 일에 몰두한다.

좋은 콘텐츠 창작만이 소셜시대 생존법

그러나 SNS에 몰입할수록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낀다. 아무런 감동도 없는 짧은 문장들의 교류로는 나를 알릴 길이 없기 때문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나의 위상을 드러내 주지도 못한다. 사회에서 이미 유명한 사람들이 소셜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소셜에서의 인기는 오프라인의 지명도에 따라 정해지는 부수적인 것이다.

사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SNS에 신경 쓸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SNS 관리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SNS를 떠나고 있다. 안타깝게도 순수하게 SNS 활동을 통해 유명세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리 열심히 활동해도 사람들은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시의성 있는 정보나 엽기적인 일을 올렸다면 잠깐 화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찰나에 불과한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지고 만다.

소셜 시대에 창작물을 통해 자신을 알리려면 소셜 플랫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창조를 위한 고통스러운 작업과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고 창작물을 가다듬는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인터넷 시대는 여기에 더해 속도 또한 필요하다. 가장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형상화시켜야 한다. 인터넷으로 인해 이 경쟁은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되었다.

플랫폼에서 빠져나와 그곳에서 유통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소셜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단으로서 내가 만든 개성 있는 콘텐츠를 선택한다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이 오래도록 기억될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어쩌면 절대 고독과 공포의 시간일지도 모르지만 그 결과는 정말 아름다울 것이다. G

글 · 김인성 (IT 칼럼니스트)

공산성 성문. 공산성은 금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다.

공주박물관 야외공원.

공주 도보여행

웅진백제의 터 공산성~공주보 찬란한 역사 금강은 알고 있다

금강을 따라 전개됐던 웅진과 사비 시대의 화려한 백제문화가 충남 공주와 부여에 살아 숨 쉬고 있다. 공주의 무령왕릉과 공산성, 부여의 부소산성과 정림사지 등 백제여행의 핵심코스와 더불어 올해 개장한 백제역사문화단지를 둘러보며 백제문화의 매력에 푹 빠져 본다.

1천4백여 년 전 백제의 고도로 시간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주를 찾았다. 지금도 유유히 흐르는 금강을 따라 꽃피운 백제문화의 흔적들이 발길 닿는 곳마다 옛이야기 속으로 이방인을 초대한다.

백제 문주왕(475년) 때 서울 한성에서 웅진(공주의 옛 이름)으로 천도한 후 약 64년간 백제의 정치문화 중심지였던 공주는 도시 전체가 살아 있는 백제 박물관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유적으로 꼽히는 공산성을 시작으로 뚜벅이처럼 천천히 걸으며 백제문화 도보여행을 시작해 본다.

공주에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공산성이다. 백제가 475년에 한산성으로부터 이곳으로 도읍을 옮겨 삼근왕, 동성왕, 무령왕을 거쳐 성왕 16년(538년)에 다시 부여로 도읍을 옮길 때까지 5대 64년간 왕도를 지킨 백제의 대표적인 고대 성곽이다. 공산성은 해발 1백10미터의 능선에 있는 천연의 요새로서 동서로 약 8백미터, 남북으로 4백미터 정도의 장방형을 이루고 있다.

오랜 세월 역사의 더께가 내려앉아 있으면서도 정겹고 수려한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공산성에서는 금강을 바라보면서 한가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성벽 위로 나 있는 산책로를 따라 걷노라면, 그 옛날 백제인들이 누렸을 풍요로움과 유유자적이 그대로 전해져 온다. 산성 안에는 왕궁지, 연못 2개소, 연은사, 쌍수정, 진남루 등 많은 문화 유물이 있어 공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백제인들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공주는 도시 전체가 '백제 박물관'

고구려의 남침으로부터 웅진을 지키기 위해 금강변에 세운 공산성은 금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높다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다. 성문인 금서루 밑을 통과해 산성 안으로 들어가면 백제 왕궁지로

백제 25대 무령왕과 왕비를 모셔 놓은 송산리고분군과 내부(위, 아래 왼쪽 사진). 선사시대의 유물을 전시해 놓은 석장리박물관(아래 오른쪽 사진).

추정되는 터와 진남루, 이괄의 난 때 인조가 몸을 피했던 쌍수정, 동문루 등을 차례로 만날 수 있다.

전체 길이는 약 2.5킬로미터이며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 주말 오전 11시~오후 4시에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이 열린다. 공산성 위로 올라가면 백제 전통복장을 하고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이 있고, 활쏘기 체험장, 전통문양 체험장 등이 운영되고 있다.

고분군·박물관 둘러보고 한옥체험도

다음 볼거리는 바로 무령왕릉이 발견된 송산리고분군이다. 공산성에서 작은 언덕 너머에 있다. 백제 25대 무령왕과 왕비가 모셔진 송산리고분군은 공주가 웅진백제기의 중요한 수도였음을 실감하게 해 주는 귀중한 유적지이다. 송산 남쪽 자락 경사면의 동북쪽에 4기, 서쪽에 4기의 고분과 무령왕릉이 자리하고 있는데 보존을 위해 왕릉 출입이 금지돼 있다.

아쉽게도 일반인은 내부를 구경할 수 없다. 1~5호분은 굴식 돌방무덤(횡혈식 석실분)이며 6호분은 벽화가 그려져 있어 '송산리 벽화고분'이라고 불린다.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도와 해, 달, 구름 등을 이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두 둘러보려면 총 30~40분이 소요된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보물들은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립공주박물관은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 관광지로서 공주 여행 시 꼭 한번 들러볼 만하다.

이곳에서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1백8종 2천9백6점을 비롯해 대전·충남 지역에서 출토된 국보 19점, 보물 3점 등 문화재 1만여 점을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인 석수와 묘지석, 왕과 왕비의 목관재를 비롯해 관장식 부속구, 금제관식, 팔찌, 귀걸이 등 장신구와, 백제와 중국 남조 사이의 교류를 살필 수 있는 청동거울과, 중국 도자기 등 출토 유물들 역시 무령왕 시기 백제문화의 국제적 성격과 화려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원에는 공주 일원에서 출토된 많은 석조 유물이 전시돼 있다.

공주박물관 입구에 공주한옥마을이 조성돼 있다. 공주한옥마을은 공주의 전통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가가 형성돼 있고,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홈스테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옛사람들의 숨결이 그대로 깃든 문화유적, 박물관, 사찰, 휴양시설, 문화축제 등 다양한 관광 매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주에서 고대 백제문화에 충분히 빠져 봤다면, 내친 김에 구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본다.

금강변에 자리한 석장리박물관은 한국 최초의 선사시대 박물관으로, 단군시대보다 훨씬 앞서는 구석기시대부터 한반도에 사람이 살아왔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중요한 유적들이 있다. 전시실은 자연, 인류, 생활, 문화 등의 테마로 꾸며져 있으며 야외에는 선사시대의 움집들이 복원돼 있다.

다시 태어난 공주보와 고마나루 유원지

공주박물관에서 백제큰길로 나오면 고마나루가 나오고 고마나루 바로 옆에 공주보가 들어서 있다. 공주보 주변은 원래 하천 나대지였지만 4대강살리기 사업이 완성되면서 금강변 최고의 편의시설과 자전거길, 잔디공원, 캠핑장까지 갖춘 공원으로 거듭났다.

금강은 발원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약 4백킬로미터의 긴 여정을 가진다. 소백산맥 깊은 산골 '뜬봉샘'에서 샘솟는 물이 금강의 시작. 골짜기 따라 흘러내려 대전을 거치고 충북을 지나 충남과 전북 사이의 경계를 형성, 마침내 바다와 만난다.

금강은 흐르는 곳에 따라 이름도 가지각색. 부여군에서는 '백마강'으로, 웅진군에서는 '곰강'으로, 지류와 합쳐져 넓은 강이 되면 호수 같은 강이라고 해서 '호강'으로 부른단다. 이 긴 물길이 봄을 타는지 기지개 켜는 소리가 요란하다. 가까운 진원지를 찾아보니 고마나루라는 곳이다. 고마나루는 곰녀의 전설이 깃든 곳이다.그 전설은 곰사당의 비석에 새겨져 있다.

공주보가 설치된 곳 근처가 고마나루 솔밭이다. 공원과 함께 조성됐으며, 임시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주차장에서 금강 상류 방향으로 소나무 숲이 멋들어지게 자리해 쉽게 찾을 수 있다. 산책로를 따라 행복한 표정의 곰 석조물이 군데군데 자리했다.

공주보와 연결돼 있는 고마나루 유원지. 잔디밭이 어우러져 휴식처로 인기가 좋다.

그리고 이어지는 솔밭, 말 그대로 솔방울이 지천으로 깔렸다. 강가에 수백 그루의 소나무가 일정한 간격으로 자태를 뽐내고 있으니 분위기도 매력적이다. 고마나루 유원지에서 하류 쪽으로 약 2백미터 내려가면 넓은 공원이다. 시원한 강바람이 기분 좋다. 시야가 탁 트이면서 건너편으로 유유하게 흐르는 산자락이 이제야 눈에 들어온다. 이 같은 지형 덕분에 다사다난한 일들이 여기서 일어났다.

대표적으로 백제 문주왕이 웅진 천도 시 수상교통의 중심이 바로 이곳 고마나루였으며, 나당 연합군의 장군 소정방이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금강을 거슬러 올라와 주둔했던 곳도 이곳이다. G

글과 사진·유철상 (여행작가)

주말 시티투어, 온라인 예약하세요

공주시는 시티투어 코스가 잘돼 있다. '행복공주시티투어'는 매주 토요일과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운행한다. 오전 10시 무령왕릉에서 출발해 국립공주박물관, 공산성 등 주요 유적을 둘러보는 코스다. 코스별로 이용요금이 다르며 시티투어 버스요금은 어른 6천원, 청소년 5천원, 어린이 3천원이다.

공주 시티투어 홈페이지(tour.gongju.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일부 문화재 입장료의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행수첩

찾아가는 길 천안~논산 고속도로 공주IC 이용. 공주IC 교차로에서 계룡산 방면으로 우회전 후 곰나루교차로에서 우회전, 고마나루 솔밭을 지나면 공주보와 만난다.

추천 공주 도보 코스

공산성–송산리고분군–석장리박물관–국립공주박물관–공주한옥마을–고마나루 유원지–공주보

먹을 곳 구드래 관광단지 내에 있는 **고마나루 쌈밥**(☎041-857-9999)은 불고기나 편육, 각종 유기농 쌈야채를 곁들인 돌솥쌈밥정식을 맛볼 수 있는 집이다. 부여시내에 돌쌈밥을 내놓는 집이 여럿 되는데 원조로 소문나 있다. 주 메뉴인 돌쌈밥을 주문하면 편육과 된장찌개, 조기구이, 각종 나물과 직접 기른 유기농 야채가 한 상 푸짐하게 나온다.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만큼 인기다. 쌈밥정식 1만2천원.

잠잘 곳 공주박물관 입구에 있는 **공주한옥마을**(☎041-840-2763)은 영춘관, 도화관, 금강관 등 식당촌과 편의점이 내부에 들어서 있고 숙박동은 총 37개 객실이 운영 중이다. 한옥 안에 욕실과 현대식 화장실이 조성돼 있다. 주말에 이용하려면 한 달 전에 예약하는 것이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격은 일반실 12만원, 학생 단체는 10만원이다. 한 객실당 10명이 이용가능하다. 공주시 웅진동 337, 공주박물관 입구에 있다.

한국인에게 김치찌개란?

점심(點心)이라는 단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하다. 그러나 그 의미가 아침과 저녁 사이에 마음에 점을 찍듯 간단하게 요기하는 것이라는 설명만큼은 대체로 일치한다.

고려 중기 송나라 사절로 고려에 왔던 서긍(徐兢)이 저술한 〈고려도경(高麗圖經)〉은 당시 왕족들이 1일 3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후 조선시대의 왕족은 5끼에서 7끼까지 먹었다는 서록도 있지만 평민들은 통상 1일 2식을 했던 모양이다. 그러다 서민들이 규칙적으로 노동을 하게 됨에 따라 식간에 시장기를 느끼게 되자 아침에 남긴 밥으로 허기를 때우게 된 것이 점심의 유래라는 것이다.

소식이 점심의 내력이라지만 현대인에게 점심은 생활의 활력소이자 에너지의 원천이다. 특히 직장인에게 점심은 삶의 즐거움이자 재충전 기회이기도 하다.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점심 때 가장 즐겨먹는 음식은 김치찌개라고 한다. 김치가 우리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따지고 보면 김치의 역사는 멀리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오늘날 김치찌개의 주재료로 쓰이는 배추김치는 그 내력이 일반의 생각처럼 그리 긴 것은 아니다. 옛날의 김치는 지금보다 다양했다.

불과 1백여년 된 김치찌개 한국인 입맛 사로잡아

15세기 중반에 어의(御醫) 전순의(全循義)가 저술한 우리나라 최초의 조리서 〈산가요록(山家要錄)〉에는 오이지, 가지김치, 토란김치, 동치미와 파, 송이, 생강 등으로 담그는 30여 가지의 김치가 소개되어 있다. 그 이후에 나온 허균(許筠)의 〈도문대작(屠門大嚼)〉이나 〈음식디미방(飮食知味方)〉에도 죽순, 산갓, 동아, 나박김치는 나오는데 아직 배추김치는 보이지 않는다.

1809년에 나온 〈규합총서(閨閤叢書)〉에도 갖은 종류의 김치에다 무와 배추를 섞어 담그는 석박지까지 나오지만 그때까지도 배추통김치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의 〈시의전서(是議全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배추통김치가 등장한다. 따라서 지금의 배추김치는 조선후기에 들어와 고추가 김치의 양념으로 일반화되고 외래채소인 결구배추를 재배하면서부터 담가 먹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전의 김치는 오늘날의 장아찌 같은 형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무튼 이제 배추김치는 우리의 대표적인 부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 보니 김치찌개 또한 가장 대중적인 음식이 되었다. 배추김치의 역사가 짧다 보니 그것을 주재료로 하는 김치찌개의 역사도 길지 않다. 찌개라는 음식형태가 〈시의전서〉에 조치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현하니 그 자취는 기껏해야 한 세기 정도로 유추할 수 있다. 식품학계에서는 이 무렵 찌개가 국에서 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작고한 식품사학자 이성우(李盛雨) 교수는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는 요령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김치를 그대로 넣으면 너무 짜고 그렇다고 물을 많이 부으면 국이 되고 만다. 그래서 김치를 잠깐 물에 담가 알맞게 매운맛과 짠맛을 우려내야 한다. 이 요령이 김치찌개의 참맛을 결정한다. 고기도 기름기를 골라야 하며, 그렇다고 기름덩이는 안 된다. 김치찌개를 퍼먹다가 고깃덩이를 발견할 때 눈으로 보기에도 먹음직해야 한다."

식당마다 흔한 것이 김치찌개지만 서울 청담동의 새벽집은 그 맛이 유별나다. 고기로 유명한 식당이지만 남다른 김치찌개 맛 때문에 찾는 손님이 더 많을 정도이다. 문제는 훈감한 돼지김치찌개와 개운한 멸치김치찌개 중에서 택일하기가 항상 난감하다는 점이다. G

글·예종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음식문화평론가)

왜 죽여?

'산속의 좁은 길이 잠깐 사용할 때는 길을 이루다가, 또 잠깐 사용하지 않으면 띠풀이 가득 차게 된다고 하였는데, 어찌 오직 산속의 좁은 길만 그러하겠는가?'

조선 후기의 유학자 윤휴(尹鑴·1617~1680)가 자신의 문집 〈독서기〉 서문에 쓴 첫머리다. 한마디로 부단히 배우고 익히기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후학에 대한 권유이기도 하다.

윤휴는 거의 독학으로 학문을 연마해 송시열로부터 "나의 30년 독서가 참으로 가소롭구나"라는 자탄을 이끌어낼 만큼 깊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윤휴는 독학자답게 당시 대부분의 학자가 경전 이상으로 숭배하던 주희의 풀이를 비판하면서 여러 경전들을 독자적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이 같은 독자노선은 주희의 풀이를 한 자도 바꿀 수 없다는 송시열 및 (서인) 노론의 성리학과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윤휴는 당파에서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친왕 노선인 남인과 가까울 수밖에 없었다. 은연중에 신권(臣權)중심주의를 지향하던 서인 노론과는 다른 길을 걸었던 것이다.

송시열과 윤휴의 대결은 겉으로 보면 주자를 둘러싼 이념대립이지만 속으로는 권력투쟁이었다. 왕권강화를 꿈꾸던 현종은 윤휴를 중용했다. 현종 때 제기된 1, 2차 예송논쟁 때 왕실의 권위를 인정해 3년상을 주창했던 남인을 대표한 이론가가 바로 윤휴였고, 1년상이면 충분하다며 은근히 왕실을 폄하하려 했던 서인 노론을 대표한 이론가가 송시열이었다.

1차 예송논쟁 때는 윤휴가 참패하여 남인세력이 몰락했다. 그것은 이론의 몰락이라기보다는 효종 때 세력기반을 갖춰 놓은 서인을 현종이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데 따른 정치적인 패배였다. 그러나 현종15년(1674년) 치밀한 준비 끝에 현종은 다시 예송문제를 제기했고 송시열 진영은 패퇴했다.

얼마 후 현종의 외아들 숙종이 즉위했고 남인정권이 들어서자 윤휴는 남인의 실력자로 떠오른다. 현실정치는 허적이 정승을 맡아 주도했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가는 윤휴였던 것이다. 이때 현실타협적인 탁남과 원칙론적인 청남이 분화되는데 탁남의 지도자가 허적, 청남의 지도자가 윤휴였다.

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서인은 탁남과 청남의 분리 상황을 교묘하게 활용했다. 정치세력이 약하던 청남을 먼저 제거한 후에 탁남을 일망타진하는 방식이었다. 1680년(숙종6년) 인조의 아들인 인평대군의 아들 복선군 역모사건이라는, 다소 미심쩍은 사건을 계기로 남인은 결국 대대적인 숙청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윤휴도 유배형을 받았다가 결국은 사약을 받게 된다.

독학으로 학문 연마해 송시열도 탄식할 경지
주희 풀이 비판 등 여러 경전 독자적 해석
당파싸움에 밀려 사문난적으로 사약 받자
"싫으면 안 쓰면 되지" 숙종에 원망 쏟아

그에게 덧씌워진 죄목은 사문난적(斯文亂賊)이다. 간단히 말하면 주자의 '말씀'을 어지럽게 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사상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 역사 속에서 사상의 자유를 탄압한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이 사건이 언급된다. 그러나 실록을 통해 보면 오히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정치적 패배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윤휴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가 사약을 받고서 했다는 말이다. "학자가 싫으면 안 쓰면 그만이지 죽일 것까지야 없지 않은가?" 숙종에 대한 원망이었다. 학문이 자칫 화를 부르던 시절의 이야기다. G

글·이한우 (조선일보 기획취재부장)

〈공자, 불륜을 노래하다〉
경전이 아닌 詩로 '시경'을 읽는다

한흥섭 지음
사문난적 · 1만4천원

책 제목, 참 거시기하다. 아무리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세상이라 하지만, 공자님이 불륜을 노래하다니 해도 해도 너무하다.

물론, 공자를 무슨 신줏단지 모시듯 할 필요는 없겠고, 그런다고 요즘 세상에 누가 선뜻 동의할 일도 없으렷다. 그럼에도 불륜 운운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책을 읽다 보면 '에구머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네'라며 한 발 물러설 성싶다. 이 책은 제목이 요사스러운 것과는 달리, 〈시경〉 해설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경을 읽다'라는 제목을 붙이든지 하지 왜 이리 요란을 떠나 싶을 터. 알고 보면 사정이 있다. 알다시피 오늘 우리가 보는 시경은 공자가 확정판을 편집했다. '시경'이라는 책 제목도 본디 없었다. 그냥 '시'라고 하거나 '시 삼백'이라 했다. 요즘말로 하면 대중가요 노래모음이나 좀 더 의미를 두자면 민요집이라 보면 된다. 전해 오던 노랫말 가운데 공자가 나름의 관점으로 추려냈는데, 후대 사람들이 '시경'이라 이름 붙였다.

공자가 전래시 편집… 후대서 '시경'이라 불러

더 살펴보면 이렇다. 시경에는 지금부터 3천1백여 년 전인 서주시대부터 춘추시대 중엽까지 불렀던 3백5편이 실렸다. 크게 풍, 아, 송으로 나뉘는데, '풍'은 15개 제후국에서 불렀던 민요 1백69편이 들어 있다. '아'는 귀족계층의 연회에서 불렀던 노래로 우리로 치면 용비어천가에 드는데 1백5수다. '송'은 지배계층의 제사 때 쓴 노래로, 우리로 말하면 종묘제례악의 악장에 든다. 40수다. 흥미로운 사실은 풍에 남녀상열지사를 다룬 내용이 꽤 들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풍에는 "일반 평민들이 겪는 소소한 애환 및 당시 사회의 억압적 상황에 대한 원망과 비판, 저항 등이 거짓 없이" 담겨 있다. 문제는 노골적인 성애와 연심을 담은 시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 점은 공자 이후 유학자들을 무척 당황하게 했다. 공자가 좋아한 노래에 음탕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이에 노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무리한 해석이 잇따랐다. 주자는 풍에 실린 노래 가운데 정당하지 못한 남녀 사랑을 다룬 것을 특별히 음분시나 음란시라 말했다.

그리고 이런 노래를 공자가 실은 까닭에 대해서는 "나쁜 것은 사람의 방종한 뜻을 징계케 할 수 있다"auto고 보았기 때문이라 여겼다. 음분시를 통해 악한 것을 경계토록 하는 도덕적 자극을 목적했을 것이란다. 예상하지만, 지은이는 이런 해석에 반기를 들고 이른바 음분시에서 동양적 정감세계의 원형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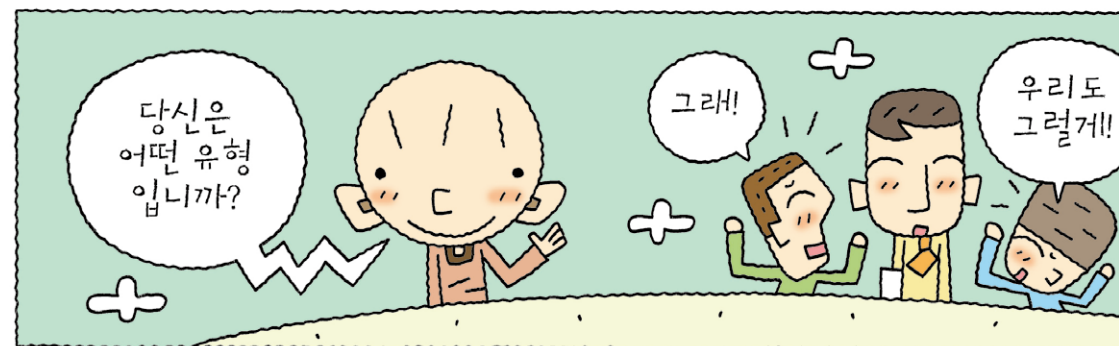
주자의 무리한 해석과 달리 시의 가치 되새겨

공자가 "즐거워도 지나치지 않고, 슬퍼도 상심케 하지 않는다"고 평한 〈물수리〉를 보자.

"꾸룩 꾸룩 우는 저 물수리는/ 저-어 강가 모래톱에 있고요/ 아름답고 맘씨 고운 아가씨는/ 내 진정 원하는 내 님입니다/ 들쭉날쭉 돋아난 마름풀들을/ 이리저리 헤치며 찾아내듯이/ 어여쁘고 맘씨 고운 아가씨를/ 자나깨나 그리워 찾아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어/ 자나깨나 그리워 찾아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어/ 자나깨나 애태우며 그려합니다/ 그리운 내 님 생각 지울 수 없어/ 이리저리 뒤척이며 지새웁니다/ 들쭉날쭉 돋아난 마름풀들을/ 이리저리 헤치다 뜯어오듯이/ 이제야 어여쁜 님을 만나서/ 금과 술을 뜯으며 벗이 됩니다/ 들쭉날쭉 돋아난 마름풀들을 이리저리 헤치다 골라오듯이/ 아리따운 아가씨 님을 얻어서/ 종과 북을 치면서 즐겨합니다"

이 시에 대해 주자는, 요조숙녀는 주나라 문왕의 비인 태사가 처녀로 있을 때를 말하고 군자는 문왕을 가리킨다며, 이 시는 문왕과 그의 부인인 후비의 덕을 노래했다 해석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런 사실을 떠올릴 만한 대목이 없다. 무리한 해석의 대표 격이다. 지은이의 해석대로 그냥 젊은이의 사랑노래라 보면 된다. 이렇듯 〈공자, 불륜을 노래하다〉는 주자가 음분시라 낙인 찍은 인간의 원초적 감정을 노래한 시들의 본래적 가치를 되새기고 있다. 글 · 이권우 (도서평론가)

당신은 어떤 유형입니까?

글과 그림 · 최영순

마지막에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G.스미스(영국의 소설가)

〈섬문화 답사기〉
섬섬옥수… 그 섬에 가고 싶다

김준 지음
서책·2만5천원

'갱번'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 있는지. 톳, 미역, 가사리 등이 자라는 조간대(潮間帶)를 일컬어 전남 여수 지역 섬사람들이 부르는 용어다. 갱번은 번듯한 논밭이 부족한 섬사람들에겐 육지의 문전옥답보다 중요한 삶의 터전.

"갱번은 드는 물에 몸을 맡기고 나는 물에 어민들 생계를 책임졌다"(58쪽)는 말이 책을 보면 실감난다. 먹을 게 없던 시절엔 갱번에서 뜯은 톳을 넣고 밥의 양을 늘려 먹었고, 미역과 톳을 팔아 생필품을 샀다.

이 책은 무모한 도전의 첫걸음이다. 저자 김준씨는 전남대에서 '어촌사회'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시작한 섬답사가 〈섬과 바다〉 〈다도해 사람들〉 〈갯벌을 가다〉 등의 책으로 묶여 나왔고, 김씨는 마침내 전국 3천3백여 개 섬 중 유인도(有人島) 4백60여 개를 직접 밟아보기로 했다.

우리나라 섬에 대한 인문학총서 '도서별곡(島嶼別曲)' 프로젝트, 그 첫 결과가 이 책이다. 이 책이 다룬 범위는 여수시와 보성·고흥·장흥·강진·해남군 6개 시군이다. 하지만 남해안 다도해의 지역들이라 이 6개 시군만 해도 저자가 밟은 섬이 71개나 된다. 육지 사람들에겐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섬은 모두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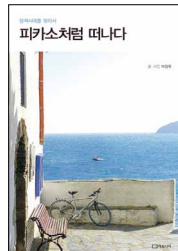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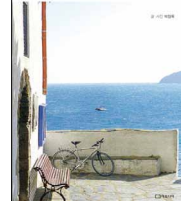
여수 등 6개 시군 71개 섬 직접 밟고 쓴 사람이야기

저자는 고금의 온갖 자료를 뒤져서 섬 하나하나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준다. 한센인들의 한과 눈물이 서린 소록도처럼 유명한 곳도 있지만 작으면 작은 대로, 큰 섬은 큰 대로 무궁한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여수 금오도의 경우 조선시대까지 궁궐을 짓고 임금의 관을 짜고 판옥선 등 전선(戰船)을 만들 소나무를 제공하기 위한 섬으로 사람이 살지 못하게 법으로 금했던 섬이며, 일제강점기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목사 중 한명이었던 이기풍 목사가 신사참배에 반대하다 순교한 곳이기도 하다.

마침 여수엑스포가 열리는 주변 지역을 주로 다루고 있어 반가운 책이다. 저자는 "여수엑스포를 통해 국제적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재인식, 국내적으로 해양산업의 발전, 지역적으로 해양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며 "덧붙여 지난 한 세기 동안 인간의 삶의 가치를 지배해 온 육지중심의 가치에서 벗어나 바다와 섬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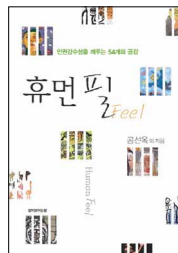
글·김한수 (조선일보 문화부 출판팀장)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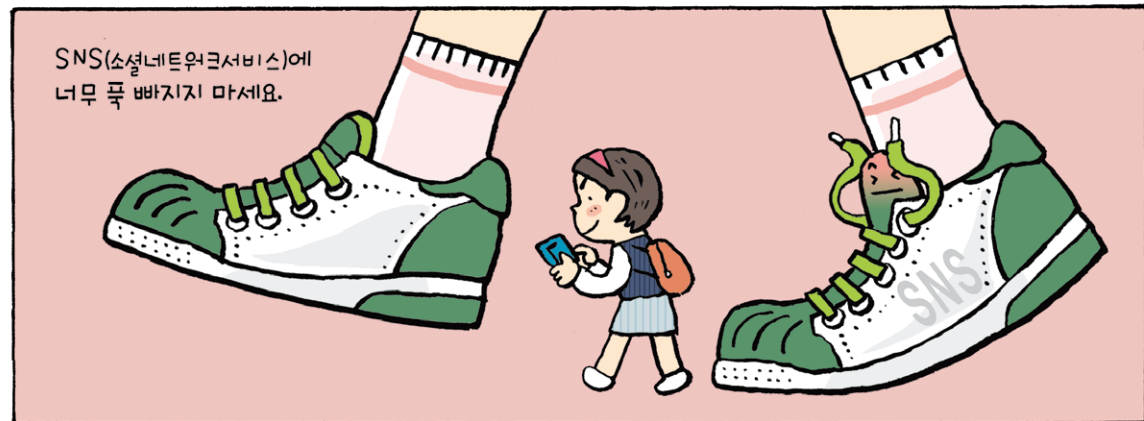
청색시대를 찾아서 피카소처럼 떠나다
박정욱 지음 | 에르디아 · 1만2천원

피카소의 흔적들을 따라가며 행복을 찾는 감성 여행 에세이다. 피카소가 친구 페르난데스와 함께 몇 달간 머물렀던 '까다께스', 피카소의 제2의 고향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남쪽 항구 도시 '시쩨' 등 피카소의 여정을 따라 세 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예술가 피카소의 흔적을 돌아보며 진정한 행복을 찾는다.

잘 가요 엄마
김주영 지음 | 문학동네 · 1만2천원

등단 41년을 맞은 소설가 김주영이 그려낸 엄마 이야기다.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를 키워낸 세상의 모든 어머니, 미련하고 바보 같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렸다. 주인공 '나'는 새벽에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는 배다른 아우의 전화를 받는다. 고향을 떠나 살면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지금까지도 버리지 못한 '나'는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어머니에 대한 애잔함과 미안함을 느낀다.

휴먼 필
공선옥 외 지음 | 삶이보이는창 · 1만3천원

54명의 작가가 세상 곳곳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이주노동자, 여성, 장애인뿐만이 아닌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이웃들의 이야기도 담았다. 필자들은 인권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인권감수성'에 다가간다. 세상 곳곳에 인권 유린과 부조리, 불합리한 관행과 차별 등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며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SNS에티켓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소소한 에티켓만으로도 세상은 더 안전해집니다.

손님! 커피 나오‘셨’습니다

오락가락하다 보니 시간이 좀 비었다. 커피 한 잔 하면 딱 좋을 시간이었다. 가까운 커피숍에 들어가 시원한 냉커피를 한 잔 주문했더니 종업원이 아주 깍듯하게 존댓말을 했다.

“손님, 4천원이십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4천원이시라고? 아니, 커피값이 4천원이시라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시’를 붙이면 대개 존댓말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커피값에 ‘시’를 붙이는 건 좀 이상했다. 왜 ‘시’를 붙였는지 묻고 싶었지만 꾹 참고 자리에 가 앉았다. 잠시 후 다시 그 종업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손님, 커피 나오셨습니다.”

아, 또 ‘시’를 붙였다. 커피 나오셨다고! 참 이상한 말투였고, 이상한 존댓말이었다. 손님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가게라 종업원들에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킨 걸까? 그렇다면 정말 문제 아닌가? 뜻이야 좋지만 말이란 어법에 맞게 써야 하고 격에 맞게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혹시 점원들한테 그렇게 존댓말을 하라고 가르치나요?”

“그렇게라니요?”

“‘손님, 4천원이십니다. 커피 나오셨습니다’라고요?”

“손님한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러스트 · 박영길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그놈의 ‘시’

손님한테 ‘커피 나왔다, 4천원이다’라고 반말하는 거보다 낫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존댓말이다. 문득 “선생님 대갈님에 검불님이 묻으셨습니다”라는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가 생각났다. 왕년에 어떤 선구자께서 존대법을 설명하려고 농담으로 만든 이야기인 것도 같지만 실화였을 수도 있다.

상대가 선생님이니 당연히 존댓말을 써야 하지만 머리 대신 ‘대갈님’이 등장한 건 좀 지어 낸 것 같은 냄새가 난다. 그렇다 해도 검불에 붙은 ‘님’은 뭐고, ‘묻었다’를 ‘묻으셨습니다’라고 한 것은 정말 포복절도할 일이었다. 그냥 “선생님, 머리에 검불이 묻었습니다”라고 하면 될 텐데.

마찬가지로 ‘손님, 4천원이십니다’는 ‘손님, 4천원입니다’로 충분하고, ‘커피, 나오셨습니다’는 ‘커피, 나왔습니다’로 충분하다. 손님을 높인답시고 커피값이나 커피를 높일 이유는 없다. 아무리 커피가 인기 있는 시대라 해도 말이다.

“손님, 얼굴이 참 크시네요”라고 하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존대법상 틀린 건 아니다. 손님과 얼굴이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간접존대에 해당한다. 그런데 요즘 높인답시고 ‘시’를 남용한다. 우연히 홈쇼핑을 보니 정말 가관이었다.

“이 제품은 정말 색깔이 좋으시고요, 소재도 좋으시고요, 디자인이 멋지시죠, 게다가 값도 저렴하시고요. 지금이 바로 구매 찬스세요.”

정말 붙여도 붙여도 너무 붙인다, 그놈의 시! G

글 · 정재환 (방송인 ·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